



[금융] 신한금융 비상 2020전략 05



Economy

코스피	2155.07 (-21.39)	코스닥	655.31 (-14.62)
금리 (미국 3년)	1.28 (+0.01)	환율 (원/달러)	1172.10 (+5.00) (6일)

지상 최대쇼... 'AI·IoT·플라잉카' 혁신주도 'K 빅3'

(삼성·LG·현대차)

CES 2020 오늘 개막

155개국 4500개 업체 한 자리에 국내 정유·중공업·유통도 첫 참가 삼성·LG전자, AI 접목 화질경쟁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앞 야외전시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소비자가전쇼) 2020'이 7일(이하 현지시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막했다. <관련기사 2, 3, 6면>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CES는 글로벌 ICT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지상 최대의 가전·IT 전시회다.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는 개막과 동시에 전시장을 찾은 관계자와 방문객의 엄청난 인파를 보면 이 전시회의 인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글로벌 전자·IT·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협업을 확대한다. 이번 전시는 155개국

45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올해는 국내 정유·중공업·유통업체 등이 처음으로 참가해 눈길을 끈다.

국내 전자업계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화질 경쟁에 돌입했다.

양사가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8K 화질을 극대화하고 진화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하는 'QLED 8K' 신제품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난도 기술력과 화면 베젤을 없앤 혁신적 디자인 등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LG전자는 8K 화질을 완벽 구현하는 기술력과 다양해진 제품 라인업을 강점으로 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먼저, 8K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LG 시그니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8K 관련해

기존 88형에서 77형을 추가하고, LG 나노셀 8K는 기존 75형에 65형까지 늘렸다. 기존보다 화면 크기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또 양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첨단 IT 기술과 가전의 융합으로 바뀌는 일상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 '패밀리허브'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CES2020'에서 선보이는 패밀리허브 신제품은 '푸드 AI'로 개인에 맞는 식단과 레시피를 제안해 준다.

LG전자는 이번 CES 부스 공간의 3분의1을 AI에 할애한다. '어디서든 내 집처럼'을 주제로 한 'LG 씬큐 존'에서 관람객들은 AI 연결로 집 안팎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특히 'LG 씬큐 홈'에서는 LG전자의 토털 AI·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 <3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중동발 리스크로 코스닥 2%대 뚫

'중동 리스크'가 우리나라 주시장을 짓눌렀다. 코스닥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코스피지수도 1% 가까이 하락했다.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4.62포인트(2.18%) 내린 655.3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로 장을 끝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1개, 내린 종목은 783개였으며 27개 종목은 포함 마감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로 무력 충돌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172.1원에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라임 투자 '데스노트' 9社 1년 새 시총 1.5조 증발

에스모,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원금 손실 사태 불안감 장기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장사 주가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투자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적힌 9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최근 1년새 1조5000억원이나 허공에 날아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매자닌채권(CB, BW) 등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1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라임운용 '데스노트'로 불리는 기업의 명단에는 에스모, 에스모 머티리얼즈(옛 네패스신소재), 디에이테크놀로지, 블러썸앤씨, 동양네스웍스, 리드, 슈펙스비엔피, 플루스바이오팜, 젠백스, 젠백스지오, 에이스테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좀비기업' 등으로 표현되며 기업 이미지 실추와 기업가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라임사태의 오명을 지우지 못했다. 더욱이 라임운용이 최대주주였던 '리드'는 경영진들이 조가조작·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거래정지를 당했다. 또 플루스바이오팜은 2019년 반기 재무제표에 감사인으로

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 7개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데스노트에 적힌 11개 종목 중 젠백스, 에이스테크를 제외한 9개 기업의 주가가 최근 1년 새 평균 70.1%나 급락했고, 사라진 시총만 1조5720억원이다.

이는 라임운용의 사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리드'와 같이 언제 사태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쌓여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도 부담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자닌 발행사들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어서다. 일부 기업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유동성위기에 처한 라임운용은 전환가가 주가보다 높은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CB를 전환하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에스모 머티리얼즈 CB 40만6503주를 3690원에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23~26일에도 같은 가격에 514만9048주를 전환했다. 현재 주가(1630원)와 비교하면 50%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또 동양네트웍스 2157만5984주를 533원에, 슈펙스비엔피 700만주를 500원에 전환했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공황상태' 글로벌 증시

'중동 리스크' 부각으로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69.93) 보다 14.62포인트(2.18%) 내린 655.31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176.46) 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에 거래를 끝냈다. /연합뉴스

이란이 카셀 솔레이마니 최고 군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걸프 협력위원회(GCC)의 7개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걸프 증시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6일 국내 증시도

법제화 앞두고 8000억 몰린 P2P... 연체율 급증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P2P(개인 간) 금융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 만큼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 시행까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연체율도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연체율 외에도 업체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공시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윌 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 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 3개월 만에 8000억원 ↑ 연체율 8% 육박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논의되던 지난해 8월 말부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말 대출잔액은 4조7358억원에서 11월 말 5조5800억원으로 8442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연체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점.

한국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말 4.87%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작년 11월 말 기준 7.89%에 달했다. 타 금융업권의 평균 연체율은 카드사·캐피탈 2%, 저축은행 5.27%로다. 연체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업체도 있다.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상환일이 30일 이상 지났는데도 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80%라는 의미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 관리에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순히 중소P2P업체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면 평가되던 대형 P2P업체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연체율 말고도 부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체율만으로 부실확인 어려워'

이에 따라 정확하게 P2P업체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추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P2P금융법은 P2P업체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가 골자다.

<5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오로라·빙하굴 천태만상 올레드... 갤러리 된 시그니처 존



LG전자 부스 가보니

LG 씽큐 존에 레스토랑 마련
주문·조리 등 서비스 로봇 체험

시그니처올레드8K·나노셀8K 등
초고해상도 TV시장 라인업 공개

인체공학적 설계 적용한 IT기기
울트라파인 에르고 모니터 첫선



LG전자는 부스 입구에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00여 장을 이어 붙여 만든 '새로운 물결(New Wave)'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연출하고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LG전자 모델들이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마련된 올레드 조형물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7일부터 10일(이하 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인공지능과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2044제곱미터(㎡)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Better Lif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공지능 가전 ▲다양한 로봇 서비스 ▲리얼 8K TV ▲초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등을 소개했다.

LG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장 김진홍 전무는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 기반의 홈, 커넥티드 카, 레스토랑 로봇 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관람객들은 기대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올레드 이용해 전시관 입구에 '새로운 물결' 연출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형물은 올레드 사이니지 200여 장을 이어 붙인 것으로 방문자를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물결'을 연출했다.

LG전자는 북극에서 보이는 오로라 보레알리스, 아이슬란드의 빙하 동굴,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모리셔스 등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어 전시관 입구에 롤러블 올레드 TV 20여 대로 '천상천하(天上天下)'를 주제로 한 올레드 세상을 표현했다.

◆대규모 LG 씽큐 존 구성...인공지능 선도 이미지 부각

LG전자는 '어디서든 내집처럼'을 주제로 LG 씽큐 존을 꾸몄다. LG 씽큐 존은 LG전자 부스 중 가장 면적이 넓다. LG전자가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전시 공간에 마련된 레스

토랑에서 접객, 주문, 음식조리, 서빙, 설거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다. LG 씽큐 존은 ▲집 안에서 누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소개하는 LG 씽큐 홈 ▲이동수단에서 인공지능 경험을 보여주는 커넥티드카 존 ▲사용자와 닮은 3D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며 실제와 같은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는 씽큐 핏 콜렉션 ▲로봇을 활용한 다이닝 솔루션을 선보이는 클로이 테이블 등으로 구성된다.

◆차원이 다른 '리얼 8K' TV

LG전자는 초고해상도 TV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의 8K TV 신제품도 선보였다. LG전자는 8K 올레드 TV인 88형·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뿐만 아니라 8K LCD TV인 75형 LG 나노셀 8K도 전시했다.

LG전자는 8K TV 신제품에 더욱 강력해진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3세대도 탑재해 한 차원 높아진 성능을 보여

줬다. 알파93세대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00만 개 이상의 영상 정보, 수천만 개의 소리 정보를 학습한 후 원본 영상과 비교 분석해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해준다.

이 외에도 4K 해상도의 145형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CD TV의 일종인 8K 해상도 80형 미니 LED TV 등도 공개했다.

◆초(超)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 전 라인업 전시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전시존을 명품 갤러리처럼 꾸몄다. 'IFA 2019'에 이어 이번에도 LG전자는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폭사스와 함께 전시존을 조성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냉장고, 세탁기, 가습공기청정기, 에어컨, 생양장 하냉동 냉장고, 와인셀러 등 LG 시그니처 전 라인업을 선보였다.

◆차별화한 생활가전 기술력으로 글로벌 가전시장 선도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 다이렉트 드라이브(DD)모터를 탑재한 대용량 트윈워시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인스타뷰 씽큐 냉장고 등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생활가전도 전시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용량 스타일러도 선보였다.

신개념 프리미엄 식음재배기도 공개했다.

◆듀얼 스크린 등 혁신적 IT 기기 공개

LG전자는 혁신적인 IT 신제품도 대거 공개했다.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LG 울트라파인 에르고 모니터

(모델명: 32UN880)를 처음 선보였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북미 시장에 본격 출시한 LG G8X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사용 편의성을 적극 알린다.

스마트폰 전시관에서는 사이니지 조형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두 대의 사이니지가 하나로 합쳐지며 나오는 영상은 듀얼 스크린 사용성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 밖에 ▲초경량 고성능 노트북 LG 그램 17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넓은 화면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니터인 LG 울트라와이드 ▲메리디안 오디오와 협력해 고음질을 구현한 사운드바, 엑스붐 스피커 등 제품도 있다.

◆LG 올레드 TV, 8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LG전자는 'CES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CES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다. 이번 전시에서만 CES 혁신상을 3개나 받으며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LG 올레드 TV는 명실상부 최고의 TV임을 인정받고 있다.

생활가전은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가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도 혁신상을 받았다. LG G8X 씽큐를 비롯해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 손짓만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 있고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4G 스마트폰 LG G8 씽큐도 CES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들이 세계 최초 롤러블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2020년형 LG 올레드 TV 라인업 공개

'알파9 3세대' 신제품에 적용

LG전자가 올레드 TV 신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한다.

LG전자는 'CES 2020'에서 2020년형 LG 올레드 TV 라인업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보다 강력해진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를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했다. 55, 65, 77, 88 등 기존 올레드 TV 라인업에 48형 제품도 처음 선보였다.

이 가운데 벽밀착 디자인을 입힌 TV는 화면, 구동부, 스피커 등을 포함한 TV 전체를 벽에 완전히 밀착한 방식이다. 기존 벽걸이 TV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을 제공한다.

LG전자는 벽밀착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TV 내부와 후면 디자인 설계를 새롭게 했다. 벽에 부착하는 부품인 브라켓은 본체에 내장해 벽걸이 부위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LG전자

는 2020년형 LG 올레드 TV(모델명: ZX/GX) 및 8K 슈퍼울트라 HD TV(모델명: 나노99) 등에 벽밀착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백라이트가 필요없는 올레드의 장점을 살려 TV 디자인을 혁신하고 있다. LG 올레드 TV는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를 적용한 '픽처온글래스' 방식(LG 시그니처 올레드 TV) ▲마치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 방식(LG 시그니처 올레드 W) ▲화면을 맡았다 펼치는 세계 최초 '롤러블' 방식(LG 시그니처 올레드 R) 등으로 디자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LG 올레드 TV는 영화, 게임, 스포츠 등 사용자가 시청하는 콘텐츠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시청 환경을 지원한다. 최신 규격의 'HDR' 기능은 특히 영화 시청에서 생생한 고해상도를 제공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SKT, 5G기반 미디어·모빌리티 시대 연다

삼성과 합작 '5G-8K TV' 공개
콜라 포 세로 TV 기술 등 선보여

SK텔레콤은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5G 기반의 미디어·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CES 2020'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C와 함께 '미래를 향한 진화의 주체'를 주제로 센트럴 홀 내 715㎡(약 216평) 규모의 공동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전시 부스에서 5G MEC 기술 기반의 ▲5G-8K TV ▲콜라 포 세로 TV ▲5GX 멀티뷰 ▲점프 AR 아쿠아월드 ▲위치애플레이 ▲ATSC 3.0 멀티뷰 등 미디어 기술을 선보인다.

우선 SK텔레콤은 지난 9월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 '5G-8K TV'를 공개한다. 5G-8K TV는 SK텔레콤의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8K 초고화질 영상의 무선 직접 수신을 구현했다. 8K 업스케일 기술과 차세대 코덱 기술을 통해 기존 풀HD, 4K 영상을 8K 화질로 올려준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



SK텔레콤 전시 부스 이미지.

/SK텔레콤

를 통해 스마트폰뿐 아니라 TV에서도 멀티뷰 중계, AR·VR 콘텐츠 등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콜라 포 세로 TV'는 T전화 영상통화 서비스 '콜라'를 삼성의 '세로 TV'에 적용한 서비스다. SK텔레콤의 ▲얼굴 인식 기반 AR 기술 ▲실시간 인물-배경 분리 기술 ▲UHD급 초고화질 기술이 탑재됐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세로 TV'와 연동할 경우, TV 본체를 스마트폰처럼 가로, 세로로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다.

이밖에 한 화면에서 최대 12개에 달하는 다채널 영상을 동시 시청할 수 있는 '5GX 멀티뷰', 이용자가 가상 공간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점프 AR 아쿠아월드',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관전 모드와 플레이 모드를 즐길 수 있는 '위치애플레이'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미국 싱클레어와 함께 'ATSC 3.0 멀티뷰' 서비스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전시된 차량용 콕핏에서 2개의 방송채널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생중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전시 부스에서 ▲통합 IVI ▲HD맵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한 로드러너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김나인 기자 skni@

로봇, 집안에 성큼... 정화·청소·세프 등 삼성봇이 척척

〈공기〉



삼성전자 부스 가보니

라이프스타일 AI 탑재 로봇 선보여 QLED8K 등 진화된 TV 대거 공개 출시 앞둔 '갤럭시' 신제품도 전시

삼성전자가 'CES 2020'에서 소비자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21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새로운 콘셉트의 로봇 공개

삼성전자는 작년 CES에서 첫선을 보인 '삼성봇' 플랫폼을 확대해 새로운 콘셉트의 로봇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그간 선보인 로봇은 노약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삼성봇케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삼성봇에어', 집안 곳곳을 청소해 주는 '삼성봇클린', 세프를 도와 조리해 주는 '삼성봇세프' 등이 있었다.

이번 CES에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AI를 탑재한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며, 6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김현석 사장의 기조연설에서 전격 공개한다.

◆미래니얼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가전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봇 세프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봇 세프'는 로봇 팔에 다양한 도구를 바꿔 장착함으로써 식재료를 자르고 섞거나 양념을 넣는 등의 요리 보조 기능을 지원하며, 레시피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올해 미래니얼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20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한 단계 진화한 '푸드 AI'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개인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와인, 맥주, 화장품 등을 각각 최적의 온도로 관리해 주는 '큐브 냉장고'와 신발의 냄새와 습기를 관리해 주는 '신발관리기' 등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도 선보인다.

이 밖에 비스포크 냉장고도 전시해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TV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한 차원 진화한 QLED 8K, 라이프스타일 TV, 더 월을 공개하고 15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020년형 QLED 8K는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새로운 AI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베젤이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을 선보여 T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QLED 8K 신제품은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사운드가 스피커들을 따라 움직이는 OTS+를 적용했고, TV와 사운드바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 주는 Q-심

포니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한다. Q-심포니는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해 사운드 혁신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스마트 기능도 대폭 개선한다.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TV플러스' 채널을 연내 120여개 확보할 예정이며, 삼성 빅스비 외에도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인식 플랫폼을 모두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 라이프스타일 TV 시장의 본격 확대를 위해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더 세로'를 전시하고 글로벌 출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반의 더 월 경험을 소비자들의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가정용 라인업도 대거 선보인다. 마이크로 LED는 모듈러 기반으로 뛰어난 화질은 물론 베젤, 사이즈,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5G 리더십 부각

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5G 갤럭시 스마트폰 전 라인업을 전시한다. 또한, 방문객들은 올해 출시 예정인 다양한 신제품을 볼 수 있다.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10 라이트 ▲갤럭시 A 시리즈 신규 모델 갤럭시 A71 ▲갤럭시 A51 ▲세계 최초 5G 태블릿 PC 갤럭시 탭 S65G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갤럭시

북S'와 '갤럭시 북 플렉스', '갤럭시 북 이온' 등 PC 최신 제품도 전시한다.

◆'디지털 콕핏 2020'

디지털 콕핏 2020은 삼성의 자동차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 칩셋을 탑재해 차량 내 8개의 디스플레이와 8개의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안전 운행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후방 화면을 설치해 라이트 역할뿐 아니라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5G 기반의 '차량용 통신 장비(TCU)'를 전시해 탑승자가 주행 중에도 고화질 콘텐츠와 HD맵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끊김 없이 화상 회의를 하거나 게임 스트리밍을 즐기는 시연도 진행한다.

◆AI·5G·빅데이터 특화 '메모리 솔루션'

삼성전자는 AI·5G·전장·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선보인다.

CES 2020 혁신상을 받은 SSD 3종 ▲PCIe 4.0 인터페이스 기반 M.2 규격의 '980 PRO 1TB'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된 보안 편리성이 강화된 '포터블 SSD T7 터치 1TB' ▲V낸드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PCIe Gen4 NVMe SSD 30.72TB(PM1733)' 등이 대표적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일상 속에서 마이크로LED TV 만난다”

한종희 삼성 사장 미디어간담회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 강조 홈엔터테인먼트시장 본격 개척 베젤없는 QLED 8K TV도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20'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 퍼스트 룩은 삼성전자가 매년 TV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미래 디스플레이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은 이날 전 세계 500여 명의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을 강조하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스크린을 최적화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AI와 연결성이 가져올 스크린의 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사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선보인 지 10여 년이 됐고, 이제 스마트 TV는 전 세계 TV 판매의 80%를 차지할 만큼 널리 확산됐다"며 "앞으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삼성 인텔리전트 스크린을 '퀵탐 AI'라고 규정하고 스크린 혁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퀵탐 AI는 삼성 TV의 두뇌 역할을 하는 '퀵탐 프로세서'가 TV에 최적화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이 삼성의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된 스마트 플랫폼 '타이젠'과 결합해 AI 기반으로 화질, 사운드는 물론 사용성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의 모든 경험을 최적화 해준다는 의미다.

◆'더 월'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0에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88형과 150형 더 월 신제품을 공개했다.

더 월은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모듈러 기반 스크린으로 뛰어난 화질은 물론 베젤, 사이즈, 화면비, 해상도 등에 제약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75형·88형·93형·110형 등 홈 엔터테

인먼트 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선보여 일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월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편, 150형과 292형은 메인 전시관에 전시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더 월 외에도 마이크로 LED 스크린이 가진 특성을 살려 ▲스피커를 일체화시킨 '큐브' ▲선반 위에 분할된 스크린을 얹어 다양한 IoT 기능을 선보이는 '셀프' ▲화면을 사용하지 않을 땐 거울로 전환되는 '미리'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콘셉트 제품도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베젤이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한 2020년형 QLED 8K TV도 공개했다.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에까지 새로운 AI 기술을 대거 적용한 게 특징이다.

◆'더 세로' 글로벌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올해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을 추가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10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스크린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 가능한 '더 프레임'은 32형과 75형을 추가하고, 지난해 국내에만 선보였던 모바일 콘텐츠에 최적화된 '더 세로'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더 세로는 기존의 가로형 스크린과 달리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43형의 QLED 디스플레이를 가로와 세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車업계 '미래 모빌리티 비전' 속속 공개

>> 1면 '지상 최대쇼'서 계속

현대차 '플라잉카' 활용 사업 소개

자동차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수단의 하나로 지난해 'CES 2019'에서 '걸어 다니는 자동차'인 엘리베이트 콘셉트카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에 집중한다. 플라잉카를 활용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도 대거 전시했다.

GM·포드·메르세데스-벤츠·BMW·도요타 등 글로벌 10대 완성차 브랜드와 자동차 부품회사,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회사 등 140곳이 참여해 자율주행 콘셉트카, 커넥티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를 대거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에 럭셔리 S클래스의 전기차 세단형 콘셉트카인 '비전 EQS'를 공개했으며, BMW는 새로운 이동성의 경험을 제공하는 콘셉트카 'i3 어반 스위트' 모델을 선보였다. 도요타는 모빌리티 에코 시스템에 대한 상세 사양뿐 아니라 전기차 기반 1인 자율주행차인 'e-4me'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혼다는 차량용 AI 비서 'OK 혼다'와 증강운전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심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 'M.Vision S'를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M.Vision S.

선보였다.

이 외에 국내 정유·유통업계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석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CES에 참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CES에서 움직이는 모험자동차와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조합해 미래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했다. SK종합화학은 친환경·초경량 자동차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소재를 전시했다.

두산중공업도 올해 처음 CES에 참가했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도 계열사 사장 등과 함께 현장을 함께 찾아가 그룹 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벳,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각각 무인 자동화 건설 솔루션인 '콘셉트 엑스'와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을 공개했다.

국내 유통업체 아모레퍼시픽도 CES에 합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CES 3D프린팅 분야 혁신상을 받은 '3D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과 내년 5월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플렉서블 발광다이오드(LED) 패치' (가칭)를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CB 손해보고 주식 전환 대기매물에 주가 직격탄

>> 1면 '라임 투자 '데스노트'...'서 계속

두 기업 역시 손해를 감수하고 주가로 전환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라임운용 사태에 휩싸였던 이유로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혀 투자 활로를 막고 있어서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선의의 피해도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 "라임사태와 관계없이 기업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흔히 CB, BW는 유동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끌어다 쓰는 전략인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풋 옵션(전환사채를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요구받으면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 또 CB, BW 전환에 따른 오버행(Overhang·대량 대기매물) 이슈도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월 최대 80만원

고용노동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에 따라 1년까지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의 경우 월 80만원, 4~9급은 월 60만원, 10~12급은 월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이후 지원 수준이 현재까지 동일해 사업주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

평성을 고려해 장애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금액을 현실화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1500여 명을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

역대 최고 R&D 예산, 세부 추진계획 공개 (연구·개발)

과기정통부, R&D 부처합동 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역대 최고치로 확정된 정부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0억원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부터 22일까지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한다. 수도권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송실대학교 환경직기념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며, 중부권은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진행한다.

권역별로 설명회 첫 날은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에서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며, 둘째 날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

건복지부, 셋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또 올해 정부 R&D 예산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후속계획 및 정부 지원정책, 정부 R&D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합동설명회 첫날인 6일에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동료 연구자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해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SKC, 동박 제조업체 KCFT 1.2조에 인수

“배터리 핵심소재 글로벌 공략”

‘동박’ 생산량 現 4배 이상 확대
KCFT, 글로벌 진출 방안 검토
SKC 생산시설과 시너지 기대

SKC가 동박 제조업체인 KCFT의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

SKC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KCFT가 SKC의 투자사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SKC는 종속회사인 SKCFT 홀딩스가 전지용 동박 및 FCCL 분야의 제조·판매 업체 KCF테크놀로지스의 주식 1913만9160주를 1조190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후 SKCFT홀딩스의 KCF테크놀로지스 지분율은 100%다.

SKC는 KCFT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탑재인지를 가속화한다. SKC는 7일 KCFT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CFT는 SKC의 100% 투자사가 된다. 지난해 6월 13일 KCFT 인수를 공식 발표한 SKC는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등 인수절차를 진행해왔다.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 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2차 전지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얇으면 얇을수록 많은 음극 활물질을 담을 수 있어 배터리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KCFT 공장 전경.

/SKC

SKC는 KCFT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독자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4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초극박 동박을 1.4m 광폭으로 세계 최장인 30km 길이의 롤로 양산화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SKC는 KCFT의 기술력에 SKC의 40년 필름 기술 노하우를 더해 더 얇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맞춰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박 공급량은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KCFT는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 3만톤의 4배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

까지 정읍공장에 생산능력 1만톤 가량의 5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향후 KCFT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터리 고객사가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진출하면 고객사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는 SKC 생산시설의 여유부지가 있어 진출할 경우 거점 마련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SKC 관계자는 “그동안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탑재인지를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KCFT와 함께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구성원 모두의 행복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중동발 리스크에 코스피 ‘출렁’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로 거래를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0원 오른 1,172.1원에 거래 마감.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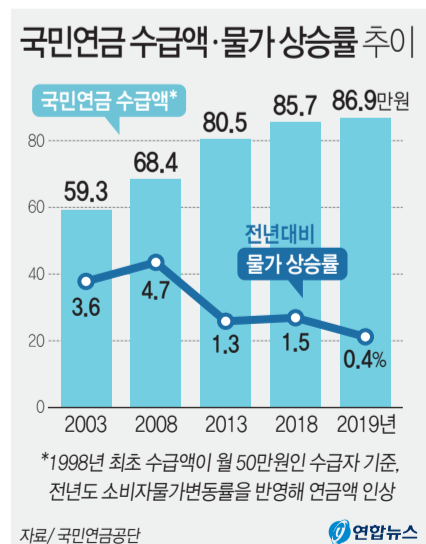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년새 1.2배 증가... “소비자 물가 반영”

국민연금공단 연금 실질 가치 보장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년 사이 1.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 방식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매월 80만5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은 2019년 12월 다달이 95만760원을 수령했다. 1.18배 가량 오른 수치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 × 0.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세경 기자 seilee@

1등 넘어 일류신한... R의 위기, R의 힘으로 극복

<경기침체>

<회복탄력성>

금융, 飛上 2020 전략

(1) 신한금융그룹

3분기 누적순익 3조육백... 사상 최대 고객과 사회의 절대적 신뢰 구축 위기돌파에 'F.R.E.S.H 2020' 전략 제2혁신금융 빅뱅위한 플랜 내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일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을 '일류신한'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원년으로 잡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날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 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一流)'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 3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해이자 일류신한을 향해 도전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 신한금융, 일등 넘어 일류(一流)

신한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8960억원이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면서 KB금융지주 2조7771억원을 앞섰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3조7030억원으로 리딩뱅크 경쟁의 승자는 사실상 신한금융으로 결정났다.

올해는 1등을 넘어 일류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일류를 말한다'를 주제로 직접 특강도 진행했다.

일류를 위한 첫 걸음은 고객신뢰다. 조 회장은 "일등은 상대적 순위에 불과하지만 일류는 고객과 사회의 절대적 신뢰를 의미한다"며 "일류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보이소피싱 제로, 고객 중심 신 평가제도, 고객 투자자산 모니터링 강화 등 언제 어디서나 고객 퍼스트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전반에서는 개방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확장·강화 관점에서 국내외 해외,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인수합병(M&A)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며 "개방형 전문인재 채용 등 경계를 초월한 경쟁환경이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R은 R로 극복한다"...회복탄력성 강조 리딩뱅크 자리는 굳혔지만 올해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만만치 않다.

조 회장은 "지금 신한을 향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라는 회색 코뿔소가 돌진해 오고 있다"며 "국내외 해외, 금융과 실물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한금융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F.R.E.S.H 2020'을 제시했다. ▲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초체력(Fundamental) ▲축적된 성공의 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Eco-system)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Sustainabili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Human-talent) 등을 말한다.

조 회장은 5개의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R(회복탄력성)을 꼽았다.

그는 "조직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은 역경 속에서 핵심 역량을 재창조해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힘"이라며 "전략적 복원력을 높인 기업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을 지닌 기업으로 재탄생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트리플-K 프로젝트' 가동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연임을 확정짓

고는 가장 먼저 '트리플-K 프로젝트(Triple-K Project)'를 내놔다.

트리플-K 프로젝트는 제2의 혁신금융 빅뱅을 위한 신한금융의 중장기 플랜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스타트업 핵심기업 2000개사를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트리플-K 프로젝트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신한금융의 체계적인 혁신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금융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코리아크로스-컨트리플랜(Korea Cross-Country Plan)'이다. 서울-대전-호남의 세로축과 경기-영남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국내 혁신 성장 생태계를 확대해 전국에 걸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리아 투 글로벌 플랜(Korea to Global Plan)'을 통해서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연이어 퓨처스랩을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진행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추가 매입

올해 첫 거래일에 5000주 매수 이번 매입으로 총 6만8127주 작년 역대 최고수준 경영상적 달성



는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경영상 실적을 달성하는 등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사진)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새해 첫걸음으로 올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에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매입으로 총 6만8127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안착시키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통해 2개의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를 그룹에 새롭게 편입시켰다. 이로써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

또한 대만 푸분금융그룹을 장기투자자로 유치해 지주사 전환 및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주 전량을 성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시장의 오버행(Overhang·대량대기매물) 이슈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지난해 업종 내 유일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점 등은 향후 주가 상승을 위한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착한 실손' 보험료 9% 가량 내린다

2017년 4월 일부 비급여, 특약 분리 실손보험료 표준화 가장 많은 판매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가입 시점에 따라 대폭 인상되거나 인하될 전망이다. 기존 실손보험료는 9%가량 인상되는 반면 신(新) 실손보험, 일명 '착한 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의 보험료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보험업계에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달

중 실손보험료를 9~1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지불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손보업계는 당초 15~20%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한 자릿수 인상'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9%대 인상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신 실손보험도 9%가량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 ▲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실손보험 중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표준화 실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 3396만건 중 구 실손은 1005만건, 표준화 실손은 2140만건, 신 실손은 237만건 수준이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2017년 4월부터 일부 비급여 항목(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MRI)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인 대신 보험료는 약 35% 낮춘 신 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험 이름에 '착한'이 붙은 것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안전한 금융투자 위해 투자자 사전조사 필수

>> 1면 '법제화 앞두고 8000억'서 계속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초기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사 투자도 최대 40%까지 가능하게 했다. 투자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시 등 투자자 보호의무도 강화된다.

P2P금융법으로 P2P연체율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연체율을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P2P금융 연체율은 각 업체의 미상환된 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원금 비중이다. 연체

가 늘어도 대출잔액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연체율이 줄어드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정상채권이 모두 상환돼 대출잔액에 연체채권만 남으면 연체율은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업체의 부실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는 투자자 몫

결국 안전한 P2P금융 투자를 위해선 투자자의 사전조사가 필수다. 특히 P2P금융 투자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 업계 내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유리 기자

SC제일銀, 티몬판매자에 정산금 선지급

SC제일은행이 6일 티몬(TMON)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사업자(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급망금융상품인 '데일리론'을 출시했다.

데일리론은 티몬의 거래중개 시스템에 입점한 판매자(물품 제공업체)가 물품을 판 뒤 티몬으로부터 지급 받을 정산예정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이후 SC제일은행은 정산일에 해당 정산금을 티몬으로부터 지급받아 판매자의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 완료되는 방식이다.

데일리론은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 위주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행에서 벗어



나 티몬 입점 판매자의 실적과 매출정보 등을 분석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대출 대상은 티몬의 e커머스 판매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사업기간 1년 이상, 티몬과의 거래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 부산은행 "방문전 모바일로 번호표 발급"

BNK부산은행이 '영업점 방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업점 방문 신청 서비스'는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전 모바일 앱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모바일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 영업점 방문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예금 상담 ▲개인대출상담 ▲기업·자영업자대출상담 ▲수출입·해외송금 상담 업무를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한화, 태양광·유화·첨단소재 결합... '18兆-1.6兆' 솔루션

〈매출〉

〈영업익〉

한화솔루션 '솔루션 비전' 공유

김동관 부사장 그룹 경영전면에서 경영 효율성 높이고 R&D 제고 등 각 부문 역량 결합해 시너지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본격 나서는 한화솔루션이 올해 약 10조원의 매출을 2025년까지 18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영업 이익도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화케미칼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해 올해 초 출범한 한화솔루션이 비전 공유식을 열고 '솔루션 제국'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화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한화솔루션 비전 선포식에서 (왼쪽부터)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 김희철 큐셀 부문 대표, 김동관 전략부문 부사장, 이규영 케미칼부문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솔루션

오디토리움에서 김희철 큐셀 부문 대표, 이규영 케미칼 부문 대표,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 김동관 전략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지를 다지는 '비전 공유식'

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올해 들어 태양광·석유화학·첨단소재 3개 부문이 하나로 합쳐 한화솔루션으로 거듭난 이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진 첫 공식 행사였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법인 출범을 계기로 각 부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시너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개 사업 부문의 통합 운영을 통해 물적·인적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은 특히 차별화 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약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를 2025년까지 약 18조원으로 늘린다는 중기 목표를 처음 공개했다. 영업이익도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한 김희철 대표는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문

제 해결의 열쇠로 거듭나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규영 케미칼 부문 대표는 "3개 사업 부문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각 부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류두형 첨단소재 부문 대표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한화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7월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화솔루션 사명 변경이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김희철 대표, 이규영 대표, 류두형 대표가 각 부문을 책임지는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T, 'T멤버십 혜택' 확 늘렸다

'T데이' 기존 10개서 19개로 확대 이달 29일엔 빙스서 40% 할인 5G부스트파크 혜택 제휴처 늘려

SK텔레콤이 신년을 맞아 T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T데이 혜택 강화, 테마파크 제휴 확대를 비롯해 5G 고객을 대상으로 부스트파크 혜택을 7개 제휴처로 확대하는 등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1월에 제공되는 T멤버십의 T데이 제휴 혜택을 기존 10개 내외에서 19개로 확대한다. T데이는 SK텔레콤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T멤버십 등급과 상관없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첫째주 월~금요일과 매주 수요일에 정해진 제휴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중 혜택이다.

1월 첫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 12개 제휴처에서 5일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파리바게뜨 전품목 1000원당 200원 할인이 1회에 한해 최대 1만원까지 가능하다. 24시간 편의점 CU에서는 쇼콜

라티라미슈, 고구마롤케이크 등 인기 디저트 20종에 대해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던킨도너츠에서는 행사 기간 1회, 최대 5000원까지 전품목이 50% 할인된다.

이밖에 할리스커피, 11번가, Btv, 주라기월드 전시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화아쿠아플라넷, 비발디파크, 온라인 이마트몰, 넥센타이어 등에서 할인 혜택이 있다.

T데이의 매주 수요일 혜택도 강화됐다. 15일부터 피자헛 프리미엄피자 방문포장 구입시 50% 할인 혜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스타벅스 응모 이벤트를 통해 카페 아메리카노 1잔 무료 기프티콘 제공, 29일에는 1인당 1회, 20만원 한도에서 빙스 전 메뉴 40% 할인 혜택을 차례로 받을 수 있다.

T멤버십 VIP 등급에 제공되는 'VIP 픽' 혜택도 기존 6개에서 9개 제휴처로 늘어난다. 5G 고객 대상의 부스트파크 할인은 기존 5개 이용처에서 7개로 제휴처가 확대된다. 5G 이용 고객이 대상 제휴처에서 T멤버십 카드 또는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스카이라이프 제작사 투자 확대... 콘텐츠 확보

스튜디오앤뉴 지분 9.9% 취득

KT스카이라이프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보좌관', '미스함무라비' 등을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 투자에 참여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7일 '보좌관', '미스함무라비'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앤뉴와 전환우선주(CPS)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스튜디오앤뉴의 지분 9.9%를 취득하며 향후 경쟁력 있는 드라마 콘텐츠 확보와 함께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튜디오앤뉴는 국내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 뉴(NEW)가 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드라마 제작사다. '안시성' 등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 '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체 보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고 풍부한 제작 경험을 갖췄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스튜디오앤뉴 투자를 통해 예능·오락과 더불어 드라마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작 노하우를 공유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차 "모빌리티 시장선 게임 체인저"



정의선 부회장 미디어 행사

인간 중심 미래모빌리티 비전 공개

"우리는 도시와 인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CES는 시작점으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소비자가전쇼(CES) 2020'에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와 함께 향후 모빌리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현대자동차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서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간 중심의 도시 자문단'을 구성, 모빌리티가 도시의 기반 시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자문단은 역동적이고 자아실현적이며 포용적 도시 구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인간 중심의 도시 자문단'의 아트 마크먼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세 가지 핵심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차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한 '역동적인 도시 구현'에 최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자문단의 활동과는 별도로 미래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한 '미래도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존하는 도시를 특별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지역조현대차 전략기술본부장(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도시를 분석하고, 역동적인 미래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대차가 제시할 UAM과 PBV, Hub 등 세 가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동적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비전 이미지

- 1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
- 2 이착륙장(Skyport) Hub 최상단에 위치해 PAV와 Hub를 연결
- 3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UAM과 PBV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PBV와 결합으로 새로운 커뮤니티로 탄생
- 4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기반 모빌리티)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심형 친환경 모빌리티
- 5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

자료/현대차그룹

인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현대차는 세 가지 솔루션을 토대로 미래도시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동시에 현대차의 차세대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UAM, PBV, Hub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인간 중심의 역동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는 핵심으로 작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UAM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PBV는 도로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미래도시 전역에 설치될 Hub와 연결돼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한다.

현대차는 'UAM-PBV-Hub'를 축으로 하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으로 고객에게 끊김 없는(Seamless) 이동의 자유로움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

비스'의 2대 사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현대차의 중장기 혁신 계획 '2025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현대차는 이날 최초로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을 공개했다. 현대 PAV 콘셉트 'S-A1'은 전기 추진 방식의 수직이착륙 기능을 탑재하고 조종사를 포함 5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PAV 콘셉트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CES 2020' 개막 하루 전인 6일 열린 '현대차 미디어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도시와 인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했다"며 "UAM과 PBV, Hub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끊임 없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이동 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간 경계를 허물고, 의미 있는 시간 활용으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시대

SK가 전기차 배터리로 앞서갑니다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혁신이 자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칸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리니지 잡아라’ 게임업계 신작 전쟁 서막 올랐다

넥슨 14일 ‘카운터사이드’ 공개예정 넷마블 ‘A3’, ‘제2의나라’ 속속 출시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활용 신작3종 네오위즈 ‘위드 히어로즈’ 사전예약

게임 업계가 새해를 맞아 신작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탄탄하거나 새로운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신작으로 올해 포문을 열고 ‘리니지’에 대항할 전열을 다듬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올해 자체 IP를 통해 변화 모멘텀을 노린다. 올해 넥슨은 자사 장기 인기 IP인 ‘바람의 나라’,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카트라이더’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을 내놓는다.

이정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넥슨의 앞으로 10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신작들을 갈고 닦아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최종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한 ‘바람의 나라: 연’은 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IP를 모바일



‘A3 스틸얼라이브’ 대표 이미지.

/넷마블

로 구현한 MMORPG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던전앤파이터’와 추억의 게임으로 불리는 ‘마비노기’, ‘카트라이더’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다.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도 있다. 넥슨은 오는 14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현실 세계 ‘노말사이드’와 반대편 세계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그린 어반 판

타지 역할수행게임(RPG) ‘카운터사이드’를 소개할 계획이다.

넷마블도 오는 22일 신작 MMORPG ‘A3: 스틸얼라이브’의 쇼케이스를 예고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넷마블의 PC 게임 ‘A3’ IP를 기반으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인기 게임 ‘세븐나이츠’ IP 게임인 ‘세븐나이츠2’와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과 스토리를 앞세운 모바일 MMORPG인 ‘제2의 나라’도



‘바람의 나라: 연’ 이미지.

/넥슨

연내 출시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기반 IP를 활용한 신작 3종 ‘미르4’, ‘미르W’, ‘미르M’을 연내 선보인다. 컴투스도 자사 ‘서머너즈워’ IP 기반 신작 ‘서머너즈워 MMORPG’와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각각 자사 대표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네오위즈도 모바일 신작 캐주얼 RPG

‘위드 히어로즈’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위드 히어로즈는 이순신, 벤토벤, 나폴레옹 등 전 세계 역사와 신화 속 캐릭터 100여 종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게임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IP 기반 신작이 ‘리니지’ 형제가 주도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봉고3’도 전기차 합류... 기아차 첫 전기트럭

완충까지 54분, 211km 주행

봉고3도 전기 심장을 갖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6일 봉고3 EV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랜드 첫 전기 트럭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은 GL 4050만원, GLS 4270만원이다.

봉고3 EV(사진)는 완충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다. 135kW 모터에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100kW급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충까지 54분이면 가능하다.

첨단 기술도 적용됐다.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어 과적을 예



방할 수 있다. 제동시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기능도 탑재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과 버튼 시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한다. ‘전방충돌방지보조(FCA)’와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경고(DAW)’ 등 안전사양 역시 선택할 수 있다.

적재 편의도 높였다. 평바닥 옵션으로 적재고를 낮추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봉고3 EV는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전기 트럭으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 소형 상용 EV 특화 신기술을 보유해 편의성을 갖췄다”며 “구매 보조금과 합리적인 유지비 등 기존 디젤차 대비 높아진 경제성과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성으로 소형 트럭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현대·기아차 “설명절, 차 무상대여해드려요”

현대·기아자동차가 설 연휴간 차량 215대를 무상 대여한다.

현대·기아차는 6일부터 17일까지 각각 홈페이지에서 설 명절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이용 기간은 현대차가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기아차가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이다. 당첨 결과는 각각 17일과 21일 공지한다.

현대차는 쏘나타와 쏘나타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싼타페 ▲팔리세이드 등 250대를 준비했다. 기아차는 3세대 K5와 ▲K7 프리미어 20대 ▲THE K9 20대 ▲스팅어 10대

등 150대다.

참여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K9과 스팅어는 만 2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아차는 시승이 끝난 후 SNS에 후기를 작성하면 30명을 선정해 국민관광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천인을 입력하면 20명에 3세대 K5 3박 4일 시승 기회를 추가해준다.

기아차는 ‘초록여행 귀향 지원 이벤트’를 통해 중증장애인 15가구에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유류 완충, 여행 경비 등 혜택을 준다.

/김재용 기자

소형도 중형도 아닌 트레일 블레이저·XM3

쉐보레, 르노삼성

공간 활용에 효율까지 챙겨
가격 경쟁 확보 난망 지적도

‘애매한’ SUV가 시장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소형 SUV와 중형 SUV 사이에서 잠깐만 흡수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전망이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문제로 지적된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쉐보레는 오는 16일 트레일 블레이저를 국내에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한국지엠이 주도해 개발한 야심작이다. 부평 1공장에서 생산하며, 국내 자동차 수출을 주도했던 트랙스를 뒤이을 모델로 평가받는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다소 독특한 크기로도 주목을 받았다. 전장이 4400mm대로, 4200mm대인 콤팩트 SUV보다 크고 4600mm대인 중형 SUV보다는 작아서다.

이같은 크기 SUV는 이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GLA와 볼보 XC40이 대표적이다. 럭셔리 브랜드의 엔트리급 소형 SUV로 ‘가성비’를 갖춘 모델로 각광받았다.

단, 트레일 블레이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차급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소형 SUV 중에서는 큰 편인 트랙스(전장 4255mm), 중형 SUV 중에서는 작은 편인 이퀴녹스(전장 4650mm)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탓에 명확한 포지션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중형 SUV인 현대차 투싼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콘셉트로만 보면 같은 급으로 보기 어렵다. 투싼이 중



르노삼성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XM3 INSPIRE 쇼카.

형 SUV를 모티브로 했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에 더 가까운 외관을 갖고 있다. 준중형급 공간활용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소형 SUV의 스포티와 효율까지 챙긴 모습이다.

성능으로 보면 소형 SUV라고 부르는 것은 어려워진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중형 세단인 말리부에서 호평을 받았던 1.35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다. 최고출력 156마력에 최대토크 24.1kg·m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9단 변속기를 장착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자동차도 XM3로 애매한 차급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XM3는 글로벌 ‘아르카나’와 뼈대를 공유하는 모델로, 전장도 4500mm대로 예상된다. 출시를 앞둔 르노 신형 캡처(전장 4227mm)와 중형 SUV QM6(전장 4675mm)에 위치하는 SUV다. 마찬가지로 1.3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소형 SUV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장 4375mm인 기아차 셀토스가 폭발적인 판매량으로 시장을 뒤흔든 바 있다. 지난해 5개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북미모델.

여만에 4만5454대를 팔아치우며 최고 인기 SUV로 자리매김했다. 소형 SUV와 중형 SUV 판매량까지 흡수했으며, 글로벌로도 인기를 이어나갈려는 모습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셀토스가 2000만원대 초중반인데, 쉐보레 트랙스와 르노삼성 QM3가 이미 2000만원 초반대에 판매중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출시될 SUV가 성능과 효율성에서는 셀토스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소비자를 설득할만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김재용 기자 juk@

CES 열기 태평양 건너 韓증시 데울까... AI·로봇株 주목

삼성전자 새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개

IT 업종 대형주 상승세 예고
중소형주도 흐름 같이할 것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개막과 함께 IT 상장사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CES에는 한국 기업 총 390곳이 참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 6곳과 중소기업 184곳, 스타트업 200곳이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로 향해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각축전을 펼친다.

그중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가전제품과 로봇 서비스 등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CES 2020' 전시회 앞서 AI와 IoT를 적용한 제품 소개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김현석 사장은 새로운 인공지능(AI) 로봇을 전격 공개했다. LG전자는 전시회장에 마련된 2044㎡ 규모의 부스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AI 기술을 제대로 어필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CES와 관련된 중소형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겹치며 CES 테마로 엮인 중소형주가 반짝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CES 기간을 전후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돌았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높았던 2015년 코스닥 소형주의 1~2월 수익률은 19.8%를 기록했다.

그중 IT 대형주의 상승 흐름이 뚜렷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연NH투자증권 연구원은 "CES로 IT 업종이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IT 대형주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면 관련 중소형주 역시 흐름을 같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중소형주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재윤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AI와 관련된 주가가 오르고 있다"며 "AI 업종 주가 퍼포먼스가 당분간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CES를 통해 부각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유대근 현대차증권 울산지점 책임매니저는 "CES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과 풀 디블폰, 멀티카메라 등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며 "이중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선별해 유심히 보라"고 설명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AI뿐 아니라 롤러블TV, QLED 8K TV, 마이크로 LED, 스마트홈, 자율주행, 로봇, 푸드테크, 디지털 치료 등도 화두"라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며 테크업종의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ES가 당장 실적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전시 제품이나 특별하게 주목받는 업체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7951억원이 증가해 10조4561억원을 기록했다. 제도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 5조3600억원, 확정기여형(DC) 3조5254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1조5708억원으로 2018년 말 대비 DB 7718억원, DC 5630억원, IRP 4603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DB 51%, DC 34%, IRP 15%로였다. 개인형 연금인 DC+IRP 비중이 절반을 구성해 퇴직연금 적립금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의 원동력으로 우수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꼽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공시된 퇴직연금 1년 수익률은 적립금 상위 10개사 기준 DB, DC, IRP 모든 제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2018년 말 기준 10년 장기수익률도 DB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해 DC, IRP도 최상위 수준의 수익률을 보였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산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단순 자산 증대 영업이 아닌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해 온 결과 지난해 연금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개인연금금은 지난해보다 4025억원 증가한 3조4985억원을 기록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전체 연금 자산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압구정 아파트 규제 직격탄... 거래 뚝, 가격 상승폭 주춤

매도자-매수자 눈치싸움 속
당분간 매매가 보합세 전망

서울 강남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싸늘하게 식고 있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보유세 폭탄을 우려한 매도자 간 눈치보기 장이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는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는 정부의 12·16 대책 직후 거래가 줄어 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양상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시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일부 지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초강력 세무조사 예고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아파트 거래는 단 8건에 불과하다. 전월 28건 대비 20건 줄어든 수치다.

압구정 현대·미성·한양 등 아파트는 지난 1976~1987년에 준공됐다. 모두 재건축 초기 단계로 전세가격이 매매가



정부의 강력한 집값대책으로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시장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대비 20~30% 수준이다. 예전에는 아파트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전세를 끼고도 일부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12·16 대책 이후 대출이 금지돼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순수 본인 자금력에 의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상반기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12·16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2019년12월18일~2020년6월30일)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40%도 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세세차익을 노리기 어렵다"며 "일부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각종 규제 적용 대상이지만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현대 3차 아파트 전용 82.5㎡가 22억5000만원, 현대6차 아파트 전용 144.7㎡가 36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2월 현대3차 아파트 전용 82.5㎡는 23억5500만원, 현대6차 아파트 전용 144.7㎡가 37억원

에 거래되며 5000만원~1억원 올랐다.

인근에 있는 한양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1월 24억원, 12월에는 24억8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한 달 동안 8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 12월 평균 매매가는 3.3㎡당 6428만원으로 11월 6375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2월 평균 전세가는 3.3㎡당 1917만원, 11월은 1914만원이다.

이처럼 가격은 한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곧 보합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지난달 30일 기준)은 지난주 0.10% 대비 0.08% 올라 오름폭이 감소했다. 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전 0.10%에서 지난주 0.0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세가는 2주전 0.23%에서 지난주 0.1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함영진 직방비대어랩장은 "압구정동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 가격이 쉽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급상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가격 상승폭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숨고르기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NH헤지자산운용,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 도약 출범식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 두번째)이 NH헤지자산운용 이동훈 대표(세번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네번째) 등과 포즈를 취했다. /NH투자증권

기관투자자 투자로 운용

NH헤지자산운용이 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NH헤지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헤지펀드본부에서 분사해 지난해 12월 26일 새롭게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로,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NH농협캐피탈 이구찬 대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배영훈 대표, NH선물 이창호 대표,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NH헤지자산운용은 현재 7000억원 규모의 'NH엡솔루트리펀드'와 600억 규모의 'NH Pre-IPO 메타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NH엡솔루트리펀드'는 국내 헤지펀드 중 단일펀드로는 가장 큰 규모로 기관투자자로부터만 투자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헤지펀드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AI·빅데이터로 기업분석 척척... 설 곳 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투증권, 연구원 20명 부서 옮겨 5개 리서치센터부서 3개로 통합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년새 31% ↓ 코스콤·씽크폴 등 AI 플랫폼 출시

‘기업분석’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널리스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기업분석과 주식매매까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 AI 벤처기업 씽크폴이 주문비서라 불리는 ‘라씨트레이더’를 선보인데 이어 코스콤의 야심작 ‘로보애널리스트’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리서치센터 역할을 대신하며 자연스레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 ‘전보 혹은 이직’... 리서치센터의 축소 지난해부터 감지됐던 리서치센터 인력 축소 분위기는 올해 신년 인사에서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할 것 없이 많은 애널리스트가 전보 조치를 받았다. 120여명의 연구원 중 약 20명을 타 부서로 옮긴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한투증권은 기업금융(IB)

〈씽크폴의 ‘로봇 알고리즘’ 분석 결과〉

종목명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종합점수	퀀트재무순위
에이아이비트	3.0	4.6	6.4	16.7	2/4
오성첨단소재	9.1	9.0	4.2	52.0	1/4
세미콘라이트	5.2	7.4	0.6	11.9	3/4
뉴프라이드	5.2	6.3	0.5	8.6	4/4
테마평균	5.6	6.8	2.9	22.3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에 5개이던 리서치센터 부서를 3개로 통합했다. 이직도 많았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스타트업체 ‘퓨리오사’로 자리를 옮겼다.

세대교체에 나선 곳도 여럿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의 후임으로 윤창용 센터장을 낙점했다. 윤 센터장은 1977년생이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를 이끌던 구용욱 전 센터장은 Sage솔루션본부장으로 보직을 바꿨다.

제구실을 못하는 리서치센터도 생겨났다. 지난 2018년 14명의 애널리스트가 활동하던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대다수가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하며 현재는 5명뿐이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채용 계획은 없다”

고 했다. 증권가에선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사실상 해체수준을 낮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양증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서치센터 부서원 몇 명이 인사이동으로 떠났다”며 “당분간 리서치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영역에도 문제가 생겼다. 10년 이상 근무한 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는 “옛날과 달리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복잡해졌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글로벌 약재 등 추가적인 변수가 많아진 만큼 명확한 의견을 내기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애널리스트들의 수는 매년 줄고 있

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57곳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는 총 1087명이다. 1575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31%나 감소했다. 증권사들이 IB와 자산관리(WM)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리서치센터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투자자들의 ‘정보 창구’, 이젠 AI가 머지않아 AI가 투자자들의 ‘정보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센터가 축소되며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도 줄게 됐지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얘기다.

코스콤은 올 상반기 ‘로보애널리스트’를 출시한다. 데이터 오피스를 기반으로 분석된 자료를 AI가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 반응, 추가 상승 등 정보를 공유한다. 고객은 주식을 팔고자 할 때 자신의 투자성향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게 새로운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로보애널리스트 역시 발전할 것”이라며 “한 증권사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씽크폴이 출시한 ‘라씨트레이더’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씨트레이더는 딥러닝 기반의 AI주문 집행 서비스다. 효과적인 주문 체결을 위해 제작됐지만 AI주문전략서버가 예측한 주식시장, 업종, 종목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다. 씽크폴에서 출시한 라씨의 한 구성 부분인 ‘R2’는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한다.

씽크폴 관계자는 “그동안 로봇 투자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용돼왔지만 머지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고도화해 소액 투자자에게도 맞춤형 투자정보를 비롯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88억 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4088억弗... 3개월째 사상최대

작년 말 13.6억 달러 증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4088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DXY)는 96.74로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

증권(MBS) 등 유가증권은 3850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85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 등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28억5000만달러로 73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33억5000만달러로 2000만달러 줄었고, IMF 포지션은 27억9000만달러로 1억7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75억달러)은 홍콩(4342억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956억달러), 2위는 일본(1조3173억달러), 3위는 스위스(8366억달러)로 자리를 지켰다. /김희주 기자

‘현금없는 사회’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 주의

국가별 현금결제비중 2018년 기준 스웨덴 13%, 영국 28%, 뉴질랜드 31%

고령·취약계층 등 불편 겪어 ‘우려’ 대규모 정전땀 대체 지급수단 없어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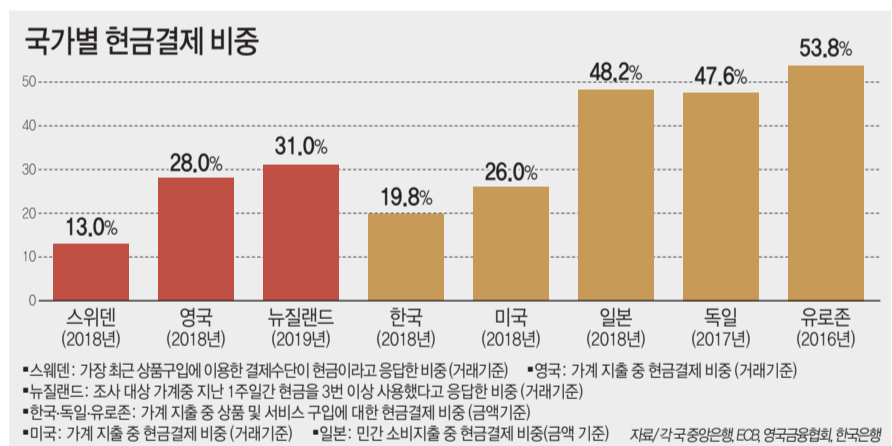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은 스웨덴이 2018년 기준 13%, 영국은 28%, 뉴질랜드 31%로 집계됐다.

현금없는 사회란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동전,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가량 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AI기업 루닛, 300억 시리즈C 투자유치

의료 인공지능(AI) 대표기업 루닛이 국내외 7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주주인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 레전드캐피탈을 비롯해 인터베스트, IMM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이들 국가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 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중앙은행(리クス뱅크)의 조사 결과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크게 늘었다. 스웨덴 상업은행 지점 중 현금 취급 지점 수는 2008년 말 1777곳에서 2014년

말 733곳으로 1000곳 넘게 사라졌다.

영국, 뉴질랜드도 2010년대 들어 상업은행 지점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8년 기준 은행 지점 수는 2011년 대비 스웨덴은 33.2%, 영국은 23.4%, 뉴질랜드는 29%씩 감소했다. ATM 수도 2014년 대비 스웨덴 21.2%, 영국 11.4%, 뉴질랜드 7.3% 줄어들었다.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며 “실제로 AI 병리 바이오마커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제약 및 바이오 의약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 중 매출액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루닛이 개발 중인 디지털화된 암 조직 병리 영상 AI 분석 플랫폼인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항암제 반응성 예측 모델에 대한 가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IJ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제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약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레미콘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 유진기업, 45% 비용절감 기대

(최대)

레미콘회사인 유진기업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경쟁력 강화에 더욱 적극 나선다.

유진기업은 스마트팩토리가 완성되는 2027년께면 자사의 레미콘공장 비용을 최대 4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그룹은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싱가포르의 팬 유니타이트와 인공지능(AI) 레미콘 제조·관리 시스템인 AiR를 한국형 스마트팩토리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팬 유니타이트가 개발한 AiR(레미콘산업용 인공지능) 시스템은 AI,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모바일 앱, 클라우드 서버,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SCM) 프로그램이다.

유진기업과 손잡고 함께 개발하는 한국형 AiR 시스템은 도심지역에 적합하게 설계된 기존 시스템을 보다 광역화된 한국적인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8~4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진기업이 구상 중인 스마트팩토리는 센서기술을 활용한 생산효율향상과 품질안정성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설비이상유무 예측, AI 등을 활용한 물류최적화 등 자율생산과 원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진기업은 2022



정진학 유진기업 총괄사장(왼쪽)이 이켄 로 팬 유니타이트 최고운영책임자와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그룹

싱가포르 팬 유니타이트와 손잡고 한국형스마트팩토리에 AiR 적용 파일럿 설비 거쳐 2027년 마무리

년 파일럿 설비 도입을 거쳐 2027년에는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팩토리 개발을 추진해 온 유진기업은 지난해엔 일본의 리버티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품질제어에 필수적인 측정장비를 생산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미 8개 분야에서 15개의 프로젝트를 끝내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진기업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는 배경은 유경

선 회장의 미래 레미콘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유경선 회장은 올해도 신년사를 통해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앞선 기술을 발굴·습득하고, 시장에 맞게 적용하며,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에 활용한다면 한국화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다”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진기업 기술연구소 류득현 전무는 “유진기업은 국내 레미콘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콘크리트 기술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레미콘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면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레미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귀뚜라미, 경쟁사 대표 파격 선임

보일러 사업부문 수장에
경동나비엔 최재범 영입



최재범 귀뚜라미 신임 대표이사 사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귀뚜라미가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보일러 사업부문 수장에 경쟁사인 경동나비엔 출신 인사를 전격 영입했다.

귀뚜라미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최재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2009년 경동네트웍 대표이사를 거쳐 경동나비엔 경영기획실장, 경동나비엔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한 후 2017년까지 경동나비엔 부회장을 맡았었다.

귀뚜라미는 지난 11월 투자 부문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와 사업 부문 회사 ‘귀뚜라미’로 각각 분할했다. 기존 귀뚜라미는 분할 후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가 되고, ‘귀뚜라미’는 신설되는 형태다. 분할 후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는 송경석 사장이, 사업회사 귀뚜라미는 최재범 신임 사장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송경석 대표는 2012년 귀뚜라미그룹 경영관리본부장(CFO)으로 입사해 귀뚜라미에너지와 귀뚜라미 대표이사를 두루 겸임하는 등 회사 사정에 밝고, 재무 분야에 전문성까지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범 신임 대표는 보일러 업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백색가전 대표이사, 메디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로, 특히 해외 사업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호 기자

‘브랜드K’ 다니, 3개월 만에 수출 10만배

주름 기능성화장품 판매 업체
佛수출계약 맺고 홈쇼핑 출연
10만개 판매... 120만불 규모



기서철 기베스트 대표. /배한님 기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나인테일즈 ‘링클라워 필링’을 생산·판매하는 기서철 기베스트 대표는 국가 대표 중소기업 브랜드 ‘브랜드K’에 선정된 후 수출 계약이 훨씬 쉬워졌다. 그전까지 이름 없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제품이라는 말에 바이어들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전 세계로 박람회만 10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장 부족하다 느꼈던 것이 신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했을 때 바이어가 고개를 딱 들더라구요. 정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준 거죠.”

기서철 대표는 브랜드K 덕에 프랑스와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다. 그 결과 프랑스 최대 홈쇼핑인 M6부티크에서 3개월 만에 10만개를 판매했다. 기 대표는 “프랑스 수출 성과만 약 120만불 규모”라며 “프랑스 어떤 화장품도 이루지 못한 판매 기록”이라고 자부했다.

기베스트는 현재 주름 개선용 링클라워 필링, 리프팅 마스크, 미백라인, 기능성 마스크팩, 각질 제거 라인 등 5

가지 제품을 생산 중이다. 기서철 대표는 링클라워 필링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군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베스트의 링클라워 필링뿐만 아니라 유아용 화장품 마이얼스데이를 생산하는 ‘J&P인터내셔널’, 검지에 끼우고 엄지로 조작하는 골무 포인터 마우스의 ‘골무트리’, 고양이 전용 스마트 러닝머신 캣휠을 만드는 ‘리틀캣’ 등 브랜드K 선정 기업이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리틀캣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던 곳이다.

기서철 대표는 “정부가 브랜드K에 대한 마케팅을 더 지원해서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왜 이런 제품들이 선정됐는지 브랜드K 자체를 홍보하면서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수장 공백’ 홈앤쇼핑... ‘적자 지속’ 공영쇼핑

진퇴양난 中소홈쇼핑, 올해는 날개 펴까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이 올해 새로운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경찰 조사로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물러나고, 이후 꾸러진 비상경영위원회가 본부장급 임원까지 모두 보직 해임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고강도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오는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 전열을 가다듬고 ‘제 2의 전성기’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00% 중소기업 제품 판매, 낮은 수수료 등으로 2015년 개국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영쇼핑은 지난해까지 자본금 8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며 올해 ‘흑자 원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대표자추천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3월 말 주주에서 시장 신규 선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추천위원회가 꾸러지는대로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인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언론은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과 일가가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회장이 지난해 중기중앙회 선거에



홈앤쇼핑 고강도 쇄신작업 추진 3월 신임사장 선임으로 도약 꾀해 5주년 공영쇼핑, ‘흑자 원년’ 기대

서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보유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을 염두에 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같은 날 낸 해명자료에서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로 만손(현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중소기업 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 주주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었다”면서 “김 회장 가족의 주식 취득은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취득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 사항으로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방송을 시작한 공영쇼핑은 개국 5주년인 올해를 ‘흑자 원년’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쇼핑은 방송 첫 해인 2015년 당시 -19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94억원(2016년), -35억원(2017년), -58억원(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0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영쇼핑은 강도높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 적자폭을 전년의 -58억원보다 낮은 -49억원으로 잡았었다.

이를 위해 최창희 대표를 비롯한 공영쇼핑 임직원들은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7월 말까지 -8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8월부터 월 기준 흑자로 돌려 연간 적자폭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영쇼핑은 지난해 12월에는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다만 희망퇴직자에게 제시한 조건(기본급 6개월치 지급)이 여의치 않아 실제 신청자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최저인 20%의 수수료, 중소기업 제품 100% 취급, 일부 품목은 ‘메이드 인 코리아’만 팔아야 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은 공영쇼핑이 그나마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정책방송인 만큼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예비신혼 위한 ‘웨딩멤버스’ 선포

에이스침대는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2020년도 에이스웨딩멤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에이스 웨딩멤버스’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이스침대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수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올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 ‘에이스 웨딩멤버스’는 예비 부부들이 침대 구매

시 협약을 함께 구매하는 추세를 반영해 침대 및 협탁 구매 금액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은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매 사은품으로 24인치 캐리어도 증정한다.

구매금액별로는 ▲4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24인치 캐리어 ▲3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20인치 캐리어 ▲200만원 이상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을 각각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했다. /청와대

文 대통령 신년사 화두 경제성과·국정동력 방점

오늘 청와대 신년사 발표

일정 비우고 신년사 준비 매진
발표 후 새해 첫 국무회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예정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가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 국무위원들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신년사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를 알리는 해이자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 결과는 '현정권 종합 성적표'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에 따른 성적표가 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올해 검찰개혁 마무리 및 한반도 평화라는 굵직한 과제도 직면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여론측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올해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도약기의 마지막인 올해 국정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지지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레임덕에 빠지거나 결정된다는 얘기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오종식 기획비서관 내정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내정자,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내정자,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 비서관 내정자,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내정자

기획비서관 오종식,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청와대,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이해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동력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실장직을 내려놓는 게 정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실장은 오는 4월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우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기조를 수립·기획하는 연설기획비서관을 기획비서관으로, 국정동향을 파악하는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변경했다. 이어 기획

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에서 경제보좌관실 산하로 이관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나아가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하고,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무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합쳐져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편됐다. 이 자리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우승준 기자

“설 전 법안처리”

與野 공방

“민생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與野, 정초부터 대립에 법안 뒷전 통과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 등 1만6000여개 법안 자동폐기 위기

처리가 절실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초부터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나가며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수천 가지는 된다"며 "더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뒤로 재쳐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악법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룬 채 위헌 선거법부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84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압박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지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6000여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4차산업 개발·발전과 관련해 통과가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쟁으로 한국은 전세계가 뛰어난 4차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의 규제 완화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여전히(국회에) 묶여 있다"며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사관학교 시험 '채점오류' 탈락자 13명 구제·가입교

지난 2018년도에 치뤄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이 뒤늦게 구제된다. 국방부는 당시 탈락자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아 이번 달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교는 3월 입학 전에 신입 사관생도들이 받게되는 기초 군사훈련을 의미한다.

2018년 7월 28일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중 국어과목 20번과 21번의 배점이 문제지와 문항분석표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 문항분석표에는 각각 3점과 2점으로 표기됐고, 각 사관학교는 채점을 문항분석표대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항분석표가 아니라, 문제지 배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채점 오류로 인해 배점이 뒤섞여 1차 시험에 떨어진 43명에게 재선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입교를 확정받은 13명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은 재시험을 통과했다. 또 채점오류를 수정한 뒤 커트라인을 넘은 1명은 재시험 없이 공사 최종합격을 받았고, 채점오류를 반영해, 최종선발에서 차순위로 떨어진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도 가입교를 하게 됐다.

/문형철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증응예비사관(우리군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에 해당)이 헬기로 공수된 야포를 이용해 조포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예비사관 46000명(2013년 기준) 규모에 방위의 3%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문형철 기자

軍, 동원예비군 축소… 대책마련 분주

“평시복무예비군 도입 시급” 주장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단축으로 발생할 동원예비군 자원 감소가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군안팎에서는 현역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강화한 '평시복무예비군'의 도입이 시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6일 "군 당국이 유사시에 동원될 예비군의 적정 규모인 '동원소요'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동원소요 감축의 대안으로 동원예비군의 정예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2.0'에 따

라 병력구조 감편과 함께 동원예비군 지정 인원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이고 항방예비군의 소요도 줄이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동원예비군훈련 부과를 기존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훈련대상자만 130만명에서 95만으로 줄뿐, 예비군 총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바꿔말하면 병출신의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간부예비군을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병은 전역후 4년차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7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전역후 최대 6년후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계급의 계급나이 정년에 따라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올 채용 '좁은 문·수시·AI·블라인드' 업무적합·타이밍·맞춤형지원 중요

잡코리아 채용시장 트렌드 전략
인사담당자 48% 채용 축소 전망
'기업 맞춤형 지원' 합격 가능성 ↑
미리 서류 준비해 채용공고 대비

올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채용경기 전망이 어두울 전망이다.

최근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명중 한명(48.4%)은 '올해 채용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9.7%였고 '지난 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1.9%에 그쳤다.

잡코리아는 6일 취업준비생들이 이처럼 좁아진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2020 채용시장 트렌드 대비 전략'을 통해 조언했다.

◆**좁아진 채용의 문... '기업 맞춤형 인재' 되야**

우선,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루뭉술한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계나 직무를 선택

해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입사 후 포부와 지원동기 등을 통해 지원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오랜동안 준비했음을 시사하도록 지원서를 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지원 업무 분야 관련 산업 주요 트렌드와 인제상,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이때 기업에 집중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무엇에 매료됐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 아는가 아니라 지원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원동기를 밝힐 때는 자신의 회사선택 기준을 밝히고, 이에 지원하는 회사가 어떻게 부합했는지,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자"고 했다.

◆**수시채용 확대... '타이밍'이 중요**
수시채용 확대에 따라 공채 일정

중심으로 맞춰진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전략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SK그룹, 주요 금융기업 등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상시채용이나 공채와 달리 수시로 채용공고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므로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 맞는 직무를 미리 파악해뒀다가 관련 공고가 나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다.

◆**인공지능 채용...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활용**

자소서 평가부터 면접까지 인공지능(AI)을 채용전형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AI채용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지원하는 기업의 핵심인재와 관련한 공통된 역량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뒀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인재상이나 사업내용과 관련한 표현이나 단어를 자주 사용해 조직 적합성, 직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확산대전 2019'에서 구직자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한 채용 면접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떠돌아다니는 자소서를 베껴거나 식상한 표현도 삼가는 게 좋다. AI면접에 대비해서도 과도한 표정이나 몸짓 등 과장된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AI를 통한 음성과 자세 인식에 대비해 자신이 어떤 말투, 음성, 자세로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모의면접에 참여해 평가를 받아보거나, 영상으로 직접 찍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라인드채용 확대... '직무적합성'이 중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블라인드 채용에도 대비하자. 지난해 잡코리아가 상반기 대기업 대졸신입공채 계획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63.7%는 블

라인드전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전년 조사와 비교해 30%포인트 블라인드 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블라인드채용에서는 직무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지원 직무를 정하고 해당 직무의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만 너무 많은 직무 경험을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앞서 실제 경험이나 수행 프로젝트보다 과장하는 것은 자칫 전체 지원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 경험에 기반해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량을 성장시켜왔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교, 영유아 놀이체육시장 1위 브랜드 '트니트니' 인수 /대교

대교, 영유아 놀이체육 1위 '트니트니' 인수 (브랜드)

주식 2만주 290억 취득... 지분 100%

대교는 영유아 놀이체육시장 1위 브랜드인 트니트니를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교는 이달 3일 트니트니 운영사인 티엔홀디스 주식 2만주를 290억 원에 취득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트니트니는 영유아대상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전문기업

으로, 문화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국의 2000여유아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대교는 이번 트니트니 인수를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신체 활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기업으로서 연령층을 확대해 향후 전방위적으로 교육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권대봉 총장 취임

"AI선도·글로벌 리딩대학으로 혁신"

영어권에 글로벌 캠퍼스 구축
실무교육으로 마이스터대 도전

권대봉 인천재능대 신임 총장은 6일 오후 인천재능대에서 열린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인천재능대를 AI(인공지능)선도대학, 산학일체형 마이스터대,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장이 되는 영광에 앞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OECD 최하의 출산율 등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급격한 변화속에서 대학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은 모든 산업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



권대봉 인천재능대 신임 총장이 6일 오후 교내에서 열린 인천재능대 제16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꾸고 있다"면서 "AI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공지능컴퓨터전공 등 IT계열 뿐 아니라 21개 모든 학과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변화와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교수들에게 당부했다.

권 총장은 교육부가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마이스터대학에 도전하겠다고면서 "권역별 1~2곳씩 시범 선정해 운영하는만큼 매우 어렵겠지만, 산업현장 중심 실무 교

육을 제대로 해서 산학일체 마이스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산업계 대표님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인천재능대의 교훈인 자율, 창의, 봉사를 학생들이 익혀 재능을 개발하는데 대학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글로벌 수준 인재 양성하는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웅비시키겠다"며 "영어권에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재능학원 박성훈 이사장, 고려대 이기수·어윤대전 총장 등 학내외 귀빈과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권 신임 총장은 고려대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쌍용그룹 국내의 현장에서 8년간 실무 경험을 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에서 성인계속교육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용수 기자

서울여대, 9일 인성교육 학술토론회 개최

'세대를 연결하는 인성교육' 주제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롬인성교육연구소가 오는 9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제9회 인성교육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세대를 연결하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급증했던 인성교육에 대

한 관심이 잦아든 시점에서 초중고교와 성인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연구소는 서울여대 인성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주민 대상 인성교육 위탁운영·인성교육캠프·인성교육프로그램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2.2%→2.0%... 2년만에 0.2%p ↓

연간 159억 이자부담 경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0.2%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이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된다. 상환기준소득 상향에 따라 약

19만명이 연간 174억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도 기존 6% 단일금리 방식에서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에 연차가산금리(2.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1.5% 수준 낮아진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탄력보습	주름개선	스킨피밍	피부장벽 강화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프랑스 세더마틴 보르필린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발효 겨우살이	발효 띠뿌리	병풀 추출물	눈연꽃 추출물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결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톤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센터 **070-4870-0708**

'기생충' 美 골든글로브 첫 수상

韓 영화 최초 '외국어영화상'



봉준호 감독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호텔에서 열린 77회 연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더불어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며 아카데미 전 초전으로 불린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호텔에서 열린 올해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베스트 모션픽처-포린 랭귀지) 부문에서 스페인 출신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비롯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프랑스), '더 페어웰'(중국계·미국), '레미제라블'(프랑스) 등 경쟁한 작품들과의 경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후보 지명 자체도 최초였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은 칸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쾌거에 이어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계의 높은 벽을 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0년 프랜차이즈시장은?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올해 프랜차이즈시장은 초저가와 동종&이종 아이템간 복합화, 리모델링 창업 전쟁이 예고된다.

2019년의 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악재가 전반적 경기 하락과 함께 본사와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의 대폭 상승과 업종간 과열 경쟁, 가맹사업법의 변경, 전 업종에 걸친 가격과괴 현상의 증가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대비 열악한 수익성을 나타냈으며 그로인한 경합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됐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본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으며, 가맹점과 예비창업자들의 권리와 안정창업 기준이 강화되는 2020년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2020년 전망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극심한 차별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가격과괴, 저가, 배달형, 생활지원업종, e커머스관련업 등의 약진이 예상되며, 반대로 시설창업종이나, 중관여적 아이템, 아웃도어중심의 취미관련 업종의 약진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업의 주요 핵심 트렌드는 5가지로 예견할 수 있다.

첫째, 가격과괴(price destruction)와 무한리필(infinite refill) 시장의 성

장을 꼽을 수 있다. 전 업종에 걸쳐 본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가격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기존 운영하는 아이템도 신상품을 초 저가격적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특히 외식업 위주의 업종에서는 이미 한계가 가격 이하의 판매가를 실현함으로써 오히려 가맹점들의 고통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 업종에 걸친 복합화(Convergence)를 예상할 수 있다. 2020년은 소비자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의 냉각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호객적 요소를 현장에서 구현해야만 매출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업종에 걸쳐 동종간의 아이템이나 이종간아이템간의 복합화가 많은 운영 형태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나홀로 소비족(alone consumption)과 밀레니얼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향한 마케팅전략 강화를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52.8%가 1~2인가구이며 그 중 21.7%가 1인가구다. 또한 점점 학교나 직장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새로운 소비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 '소확행'을 즐기는 세대의 중심적 소비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리모델링(Remodeling) 창업의 귀환을 꼽을 수 있다. 2019년의 창업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 따라 많은 본사나 가맹점들이 수익성적

측면과 상생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였다. 2020년에는 어려웠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던 아이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트렌드에 맞춘 아이템으로 업종전환이 본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증가할 것이다. 창업자측면에서도 가급적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창업을 우선 고려하는 기조가 나타남으로써 기존 업종을 인수 후 보강하는 방법의 창업인 리모델링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본사의 노력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의 공유와 교육사업이라 단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도에 강화된 가맹법에 의해 본사의 갑질이나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관리는 법적 규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있는 몇몇 법안은 더욱 본사의 자정과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일방적 관리형태나 갑질, 오너리스크 등의 폐해는 줄어들 것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브랜드 성장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참으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공존하는 2020년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자. 좀더 현실적 분석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올해가 브랜드의 전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공고히 실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 학박사)



HDC 신라면세점, 저소득층 자녀 위해 3000만원 장학금 2020년 새해를 맞아하여 지난 3일, 용산복지재단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HDC신라면세점 김희연 공동대표(오른쪽)가 성장한 용산구청장(왼쪽)에게 저소득층 자녀 지원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신라아이스크림세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기금 2억원 전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해 20주년을 기념해 고객 참여로 조성한 크리스마스 시즌 기금 총 2억원을 전국 20곳의 지역사회 NGO 및 기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2020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스타벅스커피



보령중보재단, 2020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 보령중보재단이 지난 2~3일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종로구지역아동센터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보령중보재단은 지역아동센터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보령중보재단

KB금융그룹, 피겨 꿈나무 위해 장학금

유망주 후원 통한 피겨발전 취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5000만원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경기도의 정부 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0(제74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5000만원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유소년 피겨 유망주 후원을 통한 피겨 발전'이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난 5일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서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왼쪽)과 정문철 KB금융지주 홍보브랜드총괄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에는 10명의 남녀 유망주(남2, 여8)가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는 '2019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와 이번에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0' 등의 주요 대회 성적을 고려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선정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피겨 스케이팅을 포함해 동계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며 "KB금융과 함께 성장한 피겨 여왕 김연아처럼 이 장학금이 피겨 유망주들이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교보생명 ○본부장 △법인1 신경우 △법인2 조길홍 ○FP지원단장 △강동 김일승 △부천 성시현 △수원중앙 황선중 △진주 정태호 △부산 조상호 △포항 김중호 △구미 윤주을 △대구중앙 최봉규 △목포 김병진 △사업단장 △서울TF P 이기창 △팀장 △티직연금마케팅 최우성
- ◆대신증권 ○신규선임 실장 △홍효실 윤태림
- ◆메드팩토 △부사장 육동인 △전무 황선진
- ◆KBS N △스포츠국장 이효중 △스포츠제작팀장 강익권 △스포츠제작팀 수석 지승준
- ◆한국지멘스 ○전무 승진 △월 빌물 ○상무 승진 △한병영 △김진국 △고세진 ○이사 승진 △하성근 △장희돈 △이순학 △이호진 △정화진 △

- 안혁기 △김정렬 △최진석 △정정현 △민혁기
- ◆오늘경제 △편집국 금융부 겸 부동산부 부국장 이병석 △산업부 부국장 정수남
- ◆컨슈머타임스 ○승진 △편집국장 김현우 △경영기획국 마케팅팀 사업담당 김재훈
- ◆서울파이낸스 ○편집국 △김무종 부국장
- ◆이투뉴스 △부사장/대기자 체재용 △편집국장 채덕중

부음

- ▲이봉희(전 KBS 해설위원실장·전 미주한국 방송 사장)씨 별세, 김경희씨 남편상, 이학승(PN공년 전략감사팀장)·이나승씨 부친상 = 6일 오전 7시40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 031-781-6725
- ▲김애교씨 별세, 문재희(삼현종합 회장)씨 부인상, 문승용(삼현종합 대표이사)·문준용(삼현 종합 상무)씨 모친상, 정희재·김현주씨 시모상 = 5일 저녁 1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7일 오전 11시. ☎ 010-9986-6085
- ▲강경미 씨 별세, 박위규(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팀장)씨 부인상 = 6일 오전 3시, 경성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선영. ☎ 055-750-8653, 010-5529-5473
- ▲홍정표(CJ헬로비전 전 경남총국장) 별세 = 6일 오전 7시 42분, 진해연세세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8일 오전. ☎ 055-548-7759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이트진로 비에 법인... 글로벌 벨트 구축

<필리핀>



참이슬 1.3만여 상자 초도 수출
베트남·日 등 이어 6번째 법인



하이트진로 과일리큐르 4종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주류시장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해외법인 하이트진로 필리핀을 설립하고 현지시장 공략에 나섰다.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필리핀은 지난해 7월말 사업허가증을 취득하고 10월 수입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전용상품 딸기메이슬을 비롯 참이슬 등 1만3000여상자(1상자=360ml 병 30본)를 초도 수출하기도 했다. 필리핀 법인은 2016년 베트남 법인 설립 이후 3년 만에 설립된 곳으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은 6번째 해외 법인이다.

필리핀은 세계 13위에 달하는 약 1억 명의 인구수로 2018년 GDP성장 6.8%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류시장 역시 이러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낵(증류주)시장은 연간 6천만 상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의 세계화'를 선포하고 경제성장, 인구기반,

주류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벨트 내 동남아시아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다. 필리핀은 법인설립 이전인 2016년부터 현지인 거래처를 통한 로컬 시장공략을 시작해왔으며, 브랜드 빌딩을 위한 클럽파티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필리핀 저도 증류주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맛 증류주인 '진로 라이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대비 2018년 판매가 두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7.2%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소주의 세계화 선포 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필리핀 법인 설립을 통해 시장 맞춤형 전략과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모션을 이뤄 한국 주류의 위상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펭수가 전하는 '설 선물'

KGC인삼공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설을 앞두고 '20년 설, 20살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BGF리테일, CU가맹점에 법률 상담서비스

BGF리테일이 올해부터 전국 CU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법률, 세무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점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맹점에서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무 대행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8년부터 가맹점주가 직접 노무사와 스태프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노무 전반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CU 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올해 신설된 노무 대행 서비스는 가맹점주가 신청만 하면 공인 노무사가 노무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는 무료 서비스다.



편의점 CU가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법률, 세무를 아우르는 토탈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BGF리테일

업의 특성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피고용인의 4대보험은 물론,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가맹점에서 놓치지 않도록 지원자격 심사부터 서류접수까지 꼼꼼히 챙겨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햇반 미강추출물 연내 100% 국산화 추진

CJ제일제당, 1분기 내 50% 적용
"맛과 품질 위해 면밀한 검증 거쳐"



햇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햇반 미강추출물 100% 국산화를 완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업체의 햇반 전용 미강추출물 생산능력은 햇반 연간 생산량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햇반 전용 국산 미강추출물 기술 개발을 완료해 10월부터 오곡밥 제품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잡곡밥과 흰밥 등 전체의 20% 물량에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내에는 햇반 전체 물량의 50%까지 국산 미강추출물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강추출물은 쌀겨에서 뽑아낸 식품 원료로, 밥의 맛과 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햇반은 99.9% 국산 쌀과 물만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미강추출물이 0.1% 미만 극소량 들어가는데, CJ제일제당은 수년간 미강추출물 국산

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노력을 지속해왔다.

CJ제일제당은 국산 미강추출물 제조업체 생산 규모 확대 일정에 맞춰 연내 100% 국산화를 완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업체의 햇반 전용 미강추출물 생산능력은 햇반 연간 생산량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산 미강추출물 적용 후 햇반만의 엄격한 맛과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면밀한 검증 및 테스트 과정이 필수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올리브영, 고객 맞춤형 카운셀링 본격화

매장 직원들에 태블릿 PC 지급
자체 앱 '올영EZ' 새롭게 도입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직원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피부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CJ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스마트스토어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CJ올리브영은 전국 매장 직원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올해부터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맞춤형 카운셀링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장에 지급된 태블릿PC는 고객 카운셀링 전문화와 스마트 워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효율적인 사용 방법의 전파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 목적은 고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매장 운영 효율 극대화다. 이에 최적화된 자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올영EZ(이지)'도 새롭게 개발했다.

자체 개발 앱 '올영EZ'는 모든 업무를 쉽게(easy)한다는 의미를 담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영EZ'의 대표 기능은 피부 문진 서비스다. 매장 직원 누구나 고객들의 피부 상태나 고민을 좀 더 명확하게 상담하고 적합한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피부 문진 서비스를 고안했다.

/신원선 기자

파리바게뜨, 경자년 맞아 '툰과 제리' 신년제품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럭키2020(LUCKY2020)'을 주제로 '툰과 제리' 캐릭터를 활용한 신년 제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미 워너 브라더스의 장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툰과 제리'를 그래픽과 패키지 디자인에 접목했다. 특히 생쥐 캐릭터인 '제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된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진하고 깊은 치즈 고유의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로운 '럭키2020 치즈케이크'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 모양을 형상화한 체다 치즈 풍미의 과자 '제리가 좋아하는 체다치즈쿠키' 등 3종이다.

/박인용 기자

롯데마트 '천안배+충주사과' 프리미엄 선물세트

롯데마트가 관습적인 가격경쟁을 떠나 과일 본연의 가치인 '맛'에 집중한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사진)를 선보인다.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혼합세트는 품질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일반적인 선물세트의 크기인 사과 300g내외, 배 600g내외보다 약 30%가량 큰 크기인 사과 380g내외, 배 800g내외의 대과로만 선별했다.

또한, 대과로만 선별된 상품을 대상으로 100% 비파괴 당도체크를 진행해 일반과일 대비 약 20% 가량 높은 당도



의 상품으로만 다시 한번 엄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파괴 당도체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과일은 전체의 10% 내외로 10개 중 1개의 상품만 '황금당도'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격이다.

/신원선 기자

유통단신

동원F&B

양반김 넣은 '개성 김만두'

동원F&B가 설 명절을 맞아 왕교자 만두에 '양반김'을 넣어 더욱 고소한 맛을 살린 '개성 김만두' (사진)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성 김만두'는 좋은 원초만을 골라 두 번 구워 더욱 바삭한 국내 1위 조미김 브랜드 양반김의 '양반 들기름김' 제품을 만두소에 넣은 제품이다. 양반 들기름김의 고소한 향이 만두와 어우러져 더욱 맛



/박인용 기자

코카콜라

새해 스페셜 에디션 출시

코카콜라가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새해 스페셜 에디션(사진)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작지만 소중한 행복의 가치를 알고,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각 패키지에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라벨에 네 칸으로 구성된 디지털 패널이 그려져 있다. 350ml 캔과 500ml 페트 제품은 DIY 패키지로 출시했다.

/박인용 기자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영지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박종혁 충북대의대 교수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위암 검진율 더 높아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

중증장애인 검진율 58%
조사 시작 당시와 상황 역전

장애인의 위암 검진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김영지 전공의, 충북대의대 박종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국가위암검진율을 장애 유무와 유형, 중증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위암검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위암검진율이 10년 전보다 31.8% 증가해 56.5%에 달한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26%만 늘어 51.9%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점이던 2006년의 경우 장애인 25.9% 비장애인(24.7%)보다 위암 검진율이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을 분석시 장애인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별로는 자폐가 있는 경우 36% 수준으로 비장애인 대비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였다. 이어 신장장애가 있을 시 39%, 뇌병변장애 41%, 장요루장애 53%, 지적장애 54%, 정신장애 55% 등의 순으로 낮았다.

현재 위암은 정부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만 40세~74세 국민에게 2년 마다 무료로 위내시경 혹은 위조영술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가 두드러진 데 대해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들의 인식 및 태도,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장애인의 위암 검진율이 낮은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을 구하기 어렵고, 의료진 역시 장애를 우선시하다 보니 위암 검진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교수는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검진은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장애가 있더라도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미뤄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바이오의약품 할랄인증 성공

‘대웅인피온’ 2012년 설립 합작법인 세계 최초 동물세포유래 의약품

대웅인피온이 세계 최초로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이 인증을 발판으로 3000억원 규모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적혈구 생성인자(EPO) 제제 ‘에포디온’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웅인피온은 대웅제약이 2012년 인도네시아 기업인 ‘인피온’과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준공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에포디온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에포디온’은 신장투석과 같은 만성 신부전 환자와 항암환자를 위한 빈혈 치료제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2017년 4월 인도네시아 시장에 발매됐다.

출시 6개월만에 인도네시아 EP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현재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웅제약의 ‘에포디온’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해 왔다.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8억명으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약 30억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현지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료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등에 할랄 인증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대웅인피온은 이번 할랄 인증을 기점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준비 중인 상피세포성장인자(EGF), 성장호르몬 제제 케어트로핀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폐암수술 생존율 61%→72%

(5년) (2002년~2006년) (2012년~2016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폐암수술팀 폐암환자 7500명 분석 결과 수술 받은 환자 70% 완치 가능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국내 의료진의 치료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폐암 수술팀은 2002~2016년 폐절제술을 받은 폐암환자 7500여명의 치료 결과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생존율은 72%로 2002~2006년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 61%보다 크게 향상됐다. 치료가 어려운 폐암의 경우 수술 등 치료 이후 5년 이상 생존할 경우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5년간 수술법도 통증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고 폐 기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상됐다.

가슴에 3~4cm 정도의 구멍 두세개만 뚫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수술’ 비율은 2002~2006년 9.7%에서 2012~2016년 74.5%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84.4%를 기록했다.

흉강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25~30cm 정도인 개흉 수술보다 수술 후 통증이나 감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

폐엽의 일부만 잘라내는 ‘폐엽 이하 절제술’ 비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20%까지 증가했다.

폐는 여러개의 엽으로 이뤄져 있는데 폐엽 이하 절제술은 암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특정 엽의 일부만 잘라내는 최소 절제 수술이다. 암이 생긴 엽 전체를 들어내는 ‘폐엽 절제술’보다 환자의 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수술법 발전과 함께 70세 이상의 고령 수술 환자도 2002년 13.3%에서 2016년 25.3%로 증가했다.

또 폐암 1기 진단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비중도 2002~2006년에는 전체 환자의 40.6%에 불과했지만 2012~2016년에는 56%까지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기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보다 방사선 노출량은 5분의 1 정도로 적고 폐암 등 폐 질환 발견율이 최대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진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LDCT) 검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세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15년 동안 실시한 폐암 수술 데이터로 폐암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수술 기술이 발전하고 조기에 발견된 폐 선암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5년 생존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최근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국내 첫 선

‘오쏘몰 이문’ 롯데홈쇼핑서 론칭 비타민C 비롯 다양한 영양성분

동아제약은 오는 9일 저녁 8시40분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서 독일 프리미엄비타민 ‘오쏘몰 이문(사진)’을 국내 최초 공식 론칭한다고 6일 밝혔다.



오쏘몰 이문은 30년 역사를 가진 독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관

매 회사 오쏘몰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독일에서 오쏘몰 이문은 최고급 비타민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쏘몰 이문에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A, B, E, K 등 다양한 영양성분과 아연, 셀레늄, 엽산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제품은 액상과 정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 복합 제형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된다. 한 박스에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30개가 들어 있다.

동아제약은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

서 오쏘몰 이문을 3박스(3개월 분) 25만5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1일 체험 분도 함께 증정한다.

오쏘몰 마케팅 담당자인 동아제약 마케팅부 브랜드팀 김소영 차장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영양의 균형에 도움을 주는 오쏘몰 이문을 국내 선보이게 됐다”며 “하루 한 번 복용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오쏘몰 이문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올해의 컬러 ‘블루’로 물들인 아이템 속속

안정적이며 옛지있는 ‘클래식 블루’ 자연 연상시키는 ‘뉴트럴 컬러’ 주목

2020년을 대표하는 트렌드 컬러로 ‘블루(파란색)’와 ‘뉴트럴 컬러’가 주목 받고 있다.

매년 올해의 색을 발표하고 있는 색채 연구소 팬톤(Pantone)에서 2020년 대표 컬러로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를 선정했다. 팬톤은 “클래식 블루는 정신적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주며, 변화하는 시대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내비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의 컬러 발표에 맞춰 패션계는 저마다 블루 아이템을 선보이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클래식 블루는 안정적이면서도 옛지 있는 컬러로 스타일링에 따라 시크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하고, 록에 한층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2020년 길거리를 가득 채울 블루 코디네이션에 대해 알아봤다.

해가 진 하늘 어스름을 표현한 클래식 블루는 묵직한 색감을 특징으로 모

노톤 아이템과 함께 매치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평소 꾸민구(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패션을 지향한다면 블랙, 화이트 계열과의 코디를 연출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트렌드 요소는 충분히 갖춰진 스타일 완성이 가능하다.

반대로 강렬하고 키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투피스 세트 코디를 제안한다. 한가지 색상으로 록을 통일 시키게 되면, 신체적인 단점 보완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뽐낼 수 있다. 더불어 그린, 퍼플, 옐로우 등 블루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함께 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자연을 연상시키는 뉴트럴 컬러 역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패션 업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얼씨 룩(Earthy Look)’이다. 얼씨 룩의 핵심은 자연을 닮은 뉴트럴 컬러다.

패션 마스크 브랜드 ‘에티카’는 최근 ‘에티카 에어웨이’ 마스크를 출시하며 자연에서 착안한 9종의 컬러를 선보였



올해의 팬톤컬러 블루

/팬톤

다. 대표 색상으로는 다운 핑크와 나이트 스카이 네이비, 라일락 꽃을 닮은 라일락 퍼플 및 부서지는 파도의 색채에서 따온 웨이브폼 민트 등이 있다. 또 얼씨 룩 트렌드를 반영한 자연 소재 컬러 구성으로 다양한 룩과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 브랜드 MCM도 얼씨 트렌드를 반영, ‘딥 블루 시’ 컬러를 적용한 ‘MCM 스타크 백팩’, ‘MCM 프루스톤 비세토스 벨트백’ 등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래에셋자산운용, 초등학생 대상 '경제 캠프'

4차 산업혁명 주제로 경제 학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국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제16회 우리아이 경제박사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겨울 방학 캠프는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캠프 참가자는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교육 동영상과 보고 소감문을 쓴 초등학생 가운데 선발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양한 게임과 체험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경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올려 학부모 안심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서 진행되는 국내 대표 해외연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아이 경제박사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과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수 프로그램인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상, 전국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아이 스쿨투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아이 경제교실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명재 미래에셋자산운용 WM마케팅부

문 부문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경제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불법사금융 주의보



기지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P2P금융 법제화, 서민금융상품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지난해 정부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2금융권이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다.

덕분에 생존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아니 정부가 내놓은 서민상품의 대상이 되는 저신용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이같은 혜택이 초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내는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몇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제도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하고 급기야 문을 닫으면서 초저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초저신용자에게 왜 불법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방법이 없었다" 혹은 "다른 방법을 몰랐다"가 주를

이룬다. 적어도 법의 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금융당국의 법이 초저신용자들의 수많은 변수들을 다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뻗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진짜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채무자들에게 빛을 탐강해주고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정부 산하 기관들조차도 불법 사금융까지는 포용해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한계선에서 있는 초저신용자에게는 뒤에서 '그선을 넘지 말라'며 옷자락을 붙들어 주는 포용이 절실할 것이다.

정부와 수많은 금융인이 '포용 금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계산적으로 가능한 수준 안에서 빛을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초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위기라고 한다. 진짜 포용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할 때 다.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아카데미 3기' 美 현장학습

유엔 등 국제기구 방문해 직접 소통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3기가 6일 미국 현장학습을 떠났다

이번 현장학습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서 유엔본부와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등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정몽구 재단

이 2017년부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제기구와 국제 NGO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3기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오준 이사장과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임형준 유엔 세계식량기구 한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최고 강사진을 초빙했다. 미국 등 국제기구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현




장학습과 이론을 잘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학생들에 호응을 받고 있다. 일부 학생은 현장 담당자에 직접 인턴 지원 권유를 받기도 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1기(25명)와 2기(30명)에 이어 3기도 30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17명을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서아프리카 지역 유엔사무소 등 국제기구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1월 7일 (음 1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48년생 적당한 고난은 진취적인 삶을 가져온다. 60년생 자식의 허물은 내가 덮어야 한다. 72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84년생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  37년생 자식과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49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땀. 61년생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아도 만족을 모른다. 7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85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  38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씩 하지 마라. 50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6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박찬 하루. 74년생 망한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86년생 공부하라.
-  39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51년생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63년생 신규투자는 신중하게. 75년생 후배가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프다. 8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  40년생 오늘일은 오늘 처리해야 내일이 한가하다. 52년생 나이는 공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나이 값을 해라. 64년생 다름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 76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88년생 안전을 살피라.
-  41년생 용기가 역사를 이끈다. 53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6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77년생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42년생 앞면 이가 저절로 빠진다. 54년생 고민을 하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66년생 가정의 화목이 항상 우선. 78년생 당신의 인생이 남의 눈치 보지 마라. 90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것이다.
-  43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67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79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91년생 꿀을 얻으려면 먼저 벌통을 손질해야.
-  44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자신감을 가져라. 5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마라. 68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80년생 운이 펼쳐지니 무슨 일든 시작. 92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단절은 신중하게.
-  45년생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음을 명심.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모두 좋은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 8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을 온다. 93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  46년생 신선한 먹거리를 선물 받는다. 58년생 자식에게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다. 70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발생. 82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94년생 이성을 만나기에 마음의 준비를.
-  47년생 방만한 태도가 지갑을 비게 한다. 59년생 큰 산(山)도 작은 흙더미가 모여 이룬다. 71년생 경관은 수려하나 내용은 별로 없다. 83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95년생 인생 길에는 항상 순서가 있다.



김상회의 4계

공짜는 복덕을 까먹는다

예측하는 데는 다양한 측면으로 비춰볼 수가 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순히 보이지만 실은 어느 때 그러한 행동이 나온다. 다양한 경험들이 각자의 무의식 속에 축적이 되고 그 식(識)은 잠재성향으로 있다가 어떤 상황을 부딪칠 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대로 자신의 무의식적인 경험 체계가 밑바탕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어느 여인은 주변에서 보자면 매우 부러운 사주일 수도 있다. 공무원 보조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중간 관리자급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 테크를 하여 집도 서너 채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역적 정신까지는 좋았다. 인색한 데다 유달리 공짜를 좋아하였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문제는 이를 지나쳐 염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직장 사람들도부터도 평이 좋지 않음은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로부터도 따를 당하고 있다. 직장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눈치를 다 꿰고 있었다. 겉으로 표현은 않는다. 다들 그녀 주변과의 유대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하여도 응당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형제가 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하여 갖은 고생을 했다. 팍팍한 살림을 끌어가느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어머니가 내뱉는 폭언 속에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나름 눈치껏 행동하면서 살아나가는 요령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축적이 된 것이다. 그러니 알뜰함이 지나쳐 염치를 무릅쓰는 일이 일상이 됐다. 이는 성격으로 고착이 된 것이다. 공짜는 복덕을 까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4			9			3
		4	6		3	7			
7		9		1					
	5			4				2	
				7		1			5
		3	8			1	6		
1		5				9	3		
	7								

스도쿠 정답									
6	1	5	8	9	2	4	7	3	8
2	8	9	6	3	7	1	5	4	2
3	4	1	2	5	8	6	9	7	3
5	6	1	7	8	4	2	9	3	7
7	2	8	9	6	1	5	4	3	8
9	3	7	4	1	5	6	2	8	9
1	5	2	8	9	7	4	3	6	1
8	7	4	9	6	3	1	2	5	8
4	9	6	2	8	7	3	1	5	9
8	5	1	6	2	8	4	7	9	3
3	9	7	4	1	2	8	5	6	3
2	6	9	8	7	5	1	3	4	2
9	1	2	8	6	4	5	9	7	3
4	8	5	2	1	7	9	3	6	8
6	8	7	4	9	5	1	2	3	7
1	6	8	5	9	7	3	4	2	1
7	2	9	1	4	6	8	9	5	3
5	9	4	7	8	3	6	1	2	4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2호	

댕냥이는 피맥 즐기고, 집사는 할인 받고... '개, 이득'!

〈강아지+고양이〉

〈펫을 키우는 주인〉

펫코노미 시대

4 유통가 '펫 멤버십' 〈끝〉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 + Family)'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1500만 명,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2027년까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펫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반려동물 전문 제품들을 선보이며 동물 특화 기능을 탑재해 차별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펫팸족 멤버십 통해 혜택 강화

이마트의 몰리스펫샵과 홈플러스는 각각 '댕냥이클럽', '마이펫 클럽'을 론칭했다. 반려동물 관련 상품 구매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멤버십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댕냥이클럽'은 전국 33개 몰리스펫샵에서 반려용품(식품 포함)을 구매할 시 스탬프를 적립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첫 가입시 5%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이후 추가로 3/7/10번째 스탬프를 적립할 때마다 각각 10/10/20% 몰리스펫샵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릴레이 스탬프' 행사를 진행한다.

'댕냥이클럽'은 이마트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탬프는 1일 1개 적립이 가능하다. 결제 시 이마트앱 내 모

이마트 '댕냥이 클럽' 등 멤버십 붓물 펫팸족 겨냥한 혜택으로 재방문 유도

외식업계는 반려견용 피자·맥주 출시 편의점선 '동물 질병검사키트' 판매도

1234 5678 9876 5432



바일 포인트카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홈플러스의 '마이펫 클럽' 가입 또한 간편하다. 홈플러스의 멤버십 '마이홈플러스' 앱에서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클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펫 상품에 대한 단독 할인 혜택뿐 아니라 유익한 애완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펫 피자·맥주 등장!

외식업체들은 반려견을 위한 전용 메뉴를 선보이며 펫 푸드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펫자'가 있다.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를 모티브로 개발

한 업계 최초 반려견용 피자도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피자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동물에게 유익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소화기 어려운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도우를 만들었고 유당불내능력이 없는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무염 치즈를 사용해 피자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렸다. 여기에 소고기, 고구마, 닭가슴살 등 개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더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맥주 회사 호가든은 반려동물 전용 간식물 '트릿데이블'과 협업해 '펫버어'를 출시했다. 펫버어는 오렌지껍질

이 재료로 사용되는 호가든에 영감을 받아 제품에 오렌지향 첨가물을 비롯해 고구마·옥수수·보리 등을 첨가해 맛과 향을 냈다. 비타민 A, B2, C, D3, E 등 총 8종의 비타민이 함유된 일명 비타민 음료로 식수 대신 음용 할 수도 있다.

◆편의점에서 반려동물 건강검진도!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편의점과 H&B 스토어는 관련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GS25는 SBS 'TV 동물농장'과 함께 반려동물 용품 PB '유어스 TV동물농장'을 론칭했다. 반려견, 반려묘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용 매대를 갖춘 점포도 4000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편의점 최초로 반려동물 질병체의 검사키트 '어헤드'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어헤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증을 마친 동물용 의료기기로서 반려동물의 소변을 통해 간단하게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체외 검사키트로 내용물은 시약막대, 색상표, 흡수지로 구성됐다.

1분 내로 핏펫앱이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반려 동물의 당뇨병, 방광염, 신부전 등 1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확인 할 수 있다.

GS25는 단순 사료, 간식 위주의 구색을 뛰어넘어 보조제와 검사키트를 선보이며 반려동물 건강 증진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U 역시 지난해 반려동물 PB 브랜드 '하울고'를 론칭하고 전용 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 '고양이를 부탁해(이하 고부해)'와 손 잡고 전용 먹거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H&B스토어 올리브영, 락라블라, 룩스 일부 매장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유통 채널 역시 관련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문 서비스와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공략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몰리스펫샵에서 고객이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닝슈트' 다이나핏 매출 1000억 최대 실적

하이퍼포먼스 스포츠브랜드 다이나핏이 론칭 3년 차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을 가뿐하게 넘어섰다.

다이나핏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식 회계연도 마감에 올해 2월까지인 만큼 이번이 공개된 성적표에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나핏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다수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 운동복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슈트의 품격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트레이닝 슈트가 론칭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다이나핏만의 제품 라인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제품군이 고르게 선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이나핏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캠페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직장인 신년 꿈 1위는 건강 보다 '자기 계발'

휴넷 직장인 987명 대상 설문 1위 자격증 취득...2위 외국어 습득 자기 계발 교육비 월 평균 12.6만원

직장인들은 올해 '건강관리'보다 '자기계발'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넷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직장인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0년 이루고 싶은 소망 1위와 2위에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습득'이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휴넷은 매년 초에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해 '건강 관리'가 1위에 뽑혔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자격증, 외국어 등 자기계발이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직장에 대한 불안감에 '업글인간(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사람)'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20.7%), '외국어 습득'(20.0%), '이직·창업'(17.1%), '다이어트·금연 등 건강관리'(17.1%), '저축 등 채테크 성공'(13.6%), '연봉 인상 및 승진'

(6.4%) 순이었다. 이외에 '학교 진학'(1.4%), '내 집 마련'(1.4%), '결혼·출산'(0.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94.4%가 올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학습 목적(복수응답)은 '업무역량 강화'가 74.6%로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교양 증진 및 힐링'은 43.7%로 2위에 올랐다. 이외에 '이직'(24.6%), '창업'(20.4%), '승진'(7.0%) 등이 차지했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지출 계획은 54.9%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도 38.0%에 달했다. 반면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견은 7.0%에 그쳤다.

한 달에 지출하는 교육비 금액은 평균 12만6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11만9000원 보다 7000원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5만~10만 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10만~20만원 미만'(23.2%), '5만원 미만'(16.9%), '30만원 이상'(11.3%), '20만~30만원 미만'(7.0%)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올해는 꼭!"... SSG닷컴, 운동용품 기획전

12일까지 '작심삼일 타파' 행사 홈트족 겨냥 120종 상품 할인혜택

연초 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꾸준한 운동'과 '다이어트'다. 특히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위 '덤벨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SSG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신년 맞이 작심삼일 타파 운동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SSG닷컴은 꾸준히 늘고 있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을 겨냥해 러닝머신과 스쿼트 머신 등 헬스용품부터 요가 매트, 짐볼,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에 이르기까지 총 120종의 상품을 최대 27% 할인해 선보인다.

헬스 카테고리 대표 상품으로는 '바디엑스 M10 클럽형 러닝머신'을 정상가 209만원에서 31만원 할인한 178만원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클럽형 러닝머신은 실제 헬스장 기구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으며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올인원 손리 스쿼트 머신' 리퍼브 상품은 8만 2000원 단독가에 판매한다. 정상가는 12만원대지만 단순 반쯤 상품

재포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체 근육 강화에 좋은 '스쿼트' 운동 자세를 정확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달 새롭게 선보이는 '손리 카이로 마사지건'은 10% 할인된 21만 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상품은 총 모양을 한 마사지 기구로 운동 전후 사용하면 근육 통증 완화를 돕는다.

이제는 SSG닷컴 스포츠팀 바이어는 "지난해는 접이식 러닝머신, 접이식 실내자전거 등 주로 보관이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이 인기였다면 올해는 집에서 헬스장 못지 않은 전문적 운동을 도와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헬스 초보를 일컫는 '헬린이(헬스+어린이)'를 위한 기초체력 향상 기구도 준비했다. 팔굽혀펴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데카트론 트레이닝 푸시업 바'를 5900원에, 복근 운동을 돕는 '크로스 트레이닝 복근용 AB휠'을 1만 1000원에 판매한다.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밸런스 보드'도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꾸준히 인기가 좋은 다이어트용품도 모았다. 요가 매트, 짐볼, 폼롤러, 마사지볼 등 소품을 최저 1만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다. 저칼로리 1주일 식단 도시락 상품과 대용량 단백질 보충제도 4만원대부터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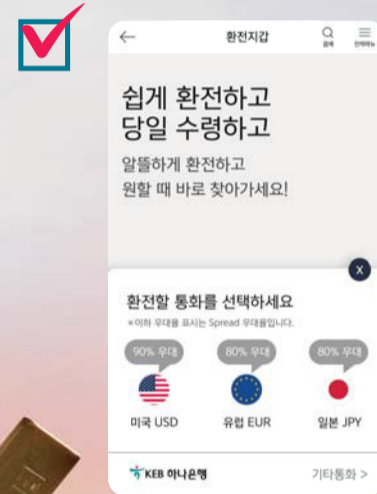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금융거래도 5G 속도로 되면 좋겠다
- 환전도 예금조회처럼 간편했으면

손님의 바람
하나하나를 모아
더 빠른 금융을 만듭니다

기다림이 짧아질수록 손님의 기쁨은 커지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빠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누리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쉽게 환전하고 당일 수령하는
모바일 환전 서비스



안성시, 주민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추진

총 36개 마을·공동체

안성시는 이웃 간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8년간 진행된 마을대학 사업과 다복공동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모집해 총 36개의 마을 및 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안성시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 혹은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환경, 봉사분야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을 지원하며, 선정된 공동체 및 마을은 컨설팅 및 재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이보현 기자



동백나무 아래 원앙 물 제327호)이 비를 피하고 있다.

소한(小寒)인 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연못의 동백나무 아래에서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이 비를 피하고 있다.

경기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 사업준공 박차

204만여㎡에 상업용지 등 조성 올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계획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의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해 올해 안에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지반확정부여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해대교와 인접한 평택 포승(BIX)지구는 산업과 물류용지 등 총 204만 9500여㎡에 자동차·화학·전자·기계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 평택 포승(BIX)지구는 입주기업들이 공장신축과 가동에 차질이 없는 상하수도·도로·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지난해 말 완료했고, 일부 기반시설 중 기온 영향이 심한 녹지 및 공원 내 식재 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황해청은 앞서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난해 4월 도로명을 부여했고, 8월부



평택 포승(BIX)지구 전경

터 시공된 상하수도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반시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 완벽한 산업 및 물류단지의 모습을 갖 추도록 할 예정이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여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이다”라며 “2019년 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돼 많은 기업이 포승지구에 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기=박한희 기자 wanhee@

기아車 광주공장 내수가 끝났다

내수 전년보다 23.7% 늘어 전년비 0.1% 증가한 45만대 생산 12월 임금교섭 관련 파업 ‘주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작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생산량은 45만5865대로 전년 45만5252대에 비해 0.1%인 613대 늘었다.

지난해 수출은 32만6946대로 전년(35만993대)보다 6.8%인 2만4047대 줄었지만, 내수가 12만8919대로 전년(10만4259대)보다 23.7%인 2만4660대 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시된 셀토스의 인기는 여전했다.

셀토스는 7월 5880대, 8월 5300대, 9월 7150대로 점차 늘었고, 10월에는 9356대로 1만대에 육박했다. 11월에는 1만730대, 12월에는 1만1500대 월 생산량 1만대 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이러한 셀토스의 인기로 힘입어 기아차 광주공장 작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 임금교섭 관련 3차례 부분 파업으로 생산량 증가가 주춤한 것으로 기아차 측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기아차 광주공장 주요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전기차 포함)이 14만 2023대로 전년 동기(15만6716대)보다 9.4%인 1만4693대 감소했다.

스포티지도 17만663대로 전년(18만 3908대)보다 7.2%인 1만3245대 줄었다. 봉고 트럭은 9만1375대로 전년(9만

3745대)보다 2.5%인 2370대 감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6년 31만 2622대를 생산해 연간 생산량 30만대를 돌파한 후 2010년 41만1196대로 40만대 생산시대를 열었다.

2014년 53만8896대로 5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5년 53만3483대를 기록한 후 생산량이 5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작년 연말 몇차례 파업이 생산량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다행이다”며 “올해는 수출시장이 활성화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해져 생산량이 크게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여수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22억

취약계층 지붕개량 등 총 702동 1가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올해부터 슬레이트 건축물도 포함

여수시가 22억여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02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55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이 53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99 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주택이 대상이며, 1가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 53가구



여수시가 22억여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는 슬레이트 처리비와 지붕개량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172만 원까지 사업비가 보조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내항 방파제에 등대 등 항로표지 설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대 신설과 노후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항로표지(등대)는 바다의 신호등으로서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얕은 곳 등을 항해자에게 알려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시설물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2기의 등대는 평택·당진항 내항에 위치한 내항관리부두 남·북방파제 끝단에서 녹색과 홍색의 불빛으로 출입항 선박의 안전한 진출입로를 안내한다.

또한 국지적 안개, 파고 등 바다 날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전광판도 소규모항·포구에 설치한다.

우선 올해 1개소를 시범설치·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항해 장비가 부족한 소형선박의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후 항로표지의 개량 및 정기적인 점검·정비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항로표지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 등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김태석 평택해양수산청장은 “대중국·신남방 물류 중심항인 평택·당진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항로표지 증설 및 노후설비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인천항만공사

제6대 신임사장 공모

인천항만공사가 제6대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가 6일 시작됐다.

IPA는 전임 남봉헌 사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장 공모를 위한 후보자 추천 계획을 확정했다.

자격요건으로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운항만·물류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와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관식을 제시했다.

이번 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15일 간의 공모기간 동안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를 마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제6대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9

1월 7일 (화) 음력 : 12월 13일

수도권 날씨 6 ~ 8℃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백령도 5/5, 파주 5/6, 인천 6/7, 평택 5/9, 연천 2/6, 동두천 4/9, 가평 2/5, 서울 6/8, 양평 5/8, 수원 7/9, 용인 7/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소규모 태양광 설치 땀 인센티브 지급... 1kWh당 100원

‘서울형 햇빛발전 제도’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지속적 설치 유도
누적 발전용량 10MW→20MW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서울시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는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6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6억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서울시

1250만6000원(발전량 3만7844MWh)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8487kW 규모다.

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민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시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56곳 중 중도 취

소된 9곳과 발전 기간이 1년 미만인 발전소 23곳을 제외한 224곳이었다.

건물용도별로 보면 민간시설이 161곳(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 34곳(15.1%), 대학 포함 학교시설 29곳(13.3%) 순이었다.

설비용량별로는 20kW 미만이 122곳(54.2%), 20kW 이상~50kW 미만은 46

곳(20.9%), 50kW 이상~100kW 이하는 56곳(24.9%)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석대상 발전소 224개소 중 민간시설이 161개소로 71.6%를 차지하나 설비용량은 3452kW로 43.8%에 불과하다”며 “민간시설 설비 용량의 73.3%가 20kW 미만으로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량 1kWh당 100원을 5년 동안 지원한다. 2013년 9월 첫 지급 이후 작년까지 발전소 104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1~2년 이내에 지원이 종료되는 곳이 60개소(24.3%)이나 신규 지원 신청 발전소 증가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전력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10월 기준) 32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10MW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배 늘려 20M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중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가중치 1.2를 적용한다. 단, 민간발전시설 설치자가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시는 이달 중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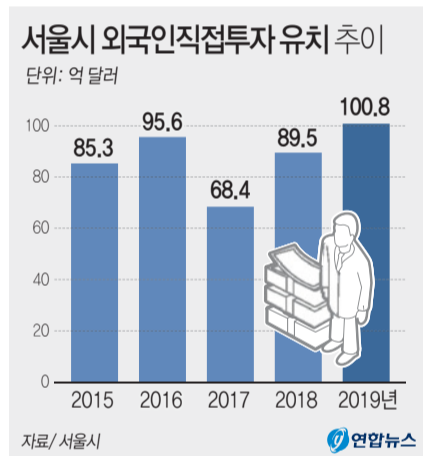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액 100억 달러 ↑ (11조7000억)

신규투자·증액투자 고르게 상승

서울시는 지난해 시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최초로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7000억원)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16년 96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며 2018년 90억 달러보다는 12%(11억 달러)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230억 달러) 가운데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투자와 증액투자가 모두 고르게 상승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총 37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유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산업 분야가 전체 신규 투자의 62%(23억 달러)를 차지했다.



기존 투자자의 증액 투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억 달러였다. 이 중 신산업 투자는 28억 달러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K부티 인기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 급증한 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서비스업은 81억 달러로 3% 감소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 외국인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김현정 기자

“농촌서 살아보고 귀농 결정하세요”

서울시 귀농체험 60세대 모집 10개월간 거주·교육비용 지원

서울시는 귀농체험을 할 60세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대 10개월간 거주비용과 교육비용의 60%(월 9만~15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올해는 흥천, 제천, 무주, 고창, 구례, 강진, 영주, 함양 등 전국 시·도 8곳에서 진행된다.

시가 사업에 참여한 60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세대(48.3%)가 실제로 귀농했고, 귀농 예정인 세대도 19세대에 달했다. 작년 참여자의 94.1%가 귀농지원 사업에 만족한



귀농 교육 모습. /서울시

다고 답했다.

귀농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근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장은 “꼼꼼한 사전 준비 없이 귀농에 성공하

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거주공간과 맞춤형 영농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시설물에 도로명 주소... 안전사고 ‘신속대응’

경기도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야.범죄.재



경기도가 재난안전 사고시 사물주소를 부여하게 될 주요위치 사진 /경기도

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고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전통시장 14곳에 특성화 사업 추진

혁신시장·공유마켓 등 경제 활성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6만 4천여 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하

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둘째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선정해 2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신규 지정해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다변화하고,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세운상가 입주기업 CES 진출

서울시는 세운상가 입주기업이 개발한 휴대용 3D 프린터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 전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청년 스타트업 공간 ‘메이커스큐브’에 입주한 ‘아나츠’라는 기업이 올해 CES에 참가한다.

아나츠의 ‘투고우 프린터’는 서울시의 ‘2019년도 세운메이드: 기획형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투고우 프린터는 백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3D 프린터다. 오지나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나츠는 CES 메인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테크 이스트 사우스홀 3D 프린팅 존에 개별 부스를 열고 투고우 프린터를 전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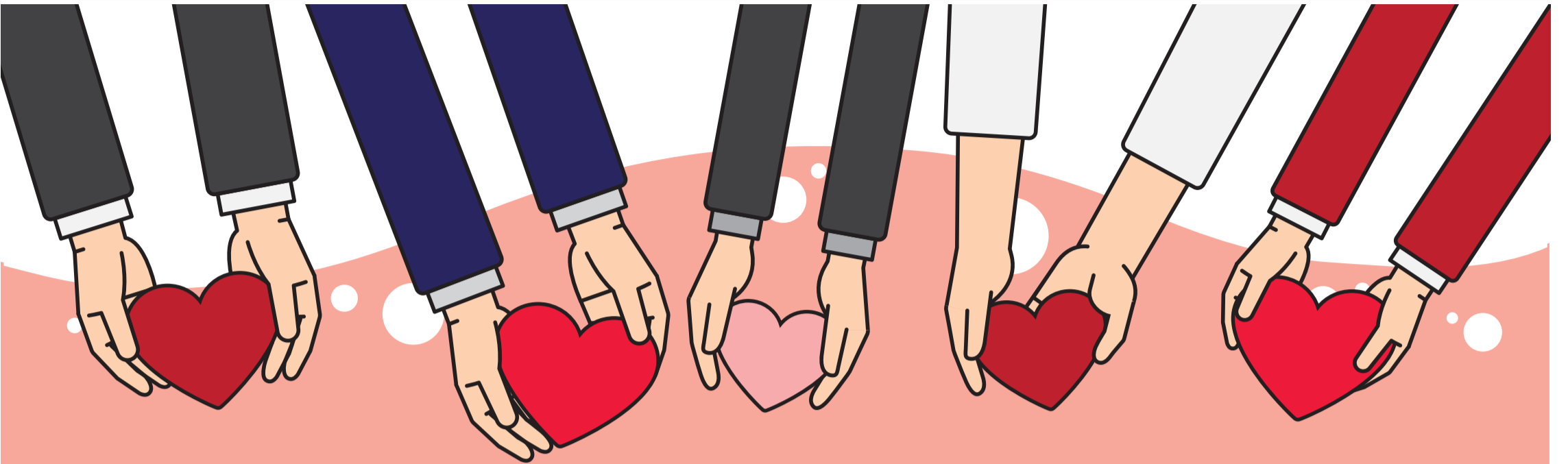


[산업] 한화솔루션 태양광·유화·첨단소재 결합 '18兆-1.6兆' 솔루션 06



Life

[라이프] 세계로 뻗어가는 하이트진로 필리핀에 법인



소외이웃·독립유공자 지원... 대부업체 모여 커지는 나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대부금융협회

800만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뿌리는 '서민'이다. 불법사금융 퇴출을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협회가 적극 나서는 이유다. 다른 금융권이 미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곳까지 돌보며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협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취약계층 살리는 장기채무 소각

협회는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협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참여의사를 밝힌 26개 대부업체와 함께 약 2만명, 총 2473억원 규모의 장기채권을 소각(빚 탕감)했다. 지난 2017년 말 약 26만명(2조8000억원 규모)의 시효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2차 소각 행사다.

협회는 해당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협회가 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채권들이다. 구체적으로 ▲시효완성채권(1만5203명) ▲과산·면책채권(2315명) ▲사망채권(1987명) ▲기타(404명)에 해당됐다.

◆ 순국선열 기리는 송고한 나눔

협회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협회와 조이크레디트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바로크레디트대부 등 12개 회원사는 삼일절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2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단체인 '광복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광복회는 이번 기부금으로 전국 지부에서 선정된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회원사들은 2016년부터 매년 광복회에 독립유공자 유족 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았던 3·1



- ①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주한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 강남 본원을 찾아 박희모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에게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 ②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 첫번째)과 12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를 찾아 소외 아동 복지사업에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했다.
- ③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한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왼쪽에서 첫번째)·김충호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 11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 특별시지사를 찾아 독거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돕기에 써달라며 4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계채무자 정상적 경제활동 위해 장기연체채권 총 2473억 규모 소각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에 기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지원도

대부업체 모여 산불 이재민 도와 겨울철 소외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 선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를 지원하는 행사도 가졌다.

협회와 에이원대부캐피탈·넥스젠파이낸스대부·듀오캐피탈대부·바로크레디트대부 등 12개 회원사들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6·25 참전유공자회 또한 협회와 회원사가 2016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는 단체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이번 기부금을 통해 전국에서 선정된 참전유공자

150여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임 회장은 "국가 수호에 헌신했던 많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 유지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협회는 수많은 참전 유공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이 보다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성금이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소외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행진

산불과 추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돕는 지원도 빼놓지 않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바로크레디트대부·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5개 대부업체와 함께 큰 산불피해를 겪었던 강원도 일대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소외 계층의 월동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이원대부캐피탈·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나이스대부 등 11개 대부업체와 함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찾아 기부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협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은 기후재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매년 폭염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방열·방한용품들로 구성된 에너지 세이브박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이브박스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둔 저소득층이 계절적 환경에 특히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기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도록 전력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한용품으로 구성된다.

임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년 회원사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정성이 담긴 에너지 세이브박스가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미혼노 가정 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회원사는 2012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겨울이불·운열매트 등 방한 물품 지원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